

제 8 장 정선군 탄광지역의 생활문화상 변천사



제1절 석탄광 개발이전의 정선군 탄광촌 주민의 삶

제2절 1950 ~ 1960년대 석탄광 개발초기와 탄광촌의 형성

제3절 1970년대 석탄광 본격 개발과 탄광촌의 모습

제4절 1980년대 석탄광의 번성과 탄광 공동체의 변화

제5절 1980년 사북노동항쟁의 배경, 진행 및 결말

제6절 1990년대 석탄산업 사양화와 지역공동화 현상

제7절 1995년(3.3) 및 1999년(9.9)의 지역경제 살리기 및 주민 생존권 투쟁

제8절 2000년대 탄광촌의 구조 변동과 지역사회의 변화

제9절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

[부록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일지
(1995-1996년)

[부록 2] 탄광지역에서 사용된 외래어 모음

제1절 석탄광 개발이전의 정선군 탄광촌 주민의 삶

1. 산간오지 화전민촌

정선지역에서 탄광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950년대 말이다. 정선군 신동읍, 사북읍 및 고한읍 등은 탄광개발 이전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화전민촌이었다. 현재 강원랜드 스키장이 개발되고 있는 백운산 자락이나 두위봉 인근에서는 지금도 화전개발의 흔적지인 무너진 집터와 그을린 벽돌 등이 쉽게 발견되고 있고, 이 집터를 중심으로 돌계단형 석축으로 만들어진 텃밭 흔적도 남아 있다.

이 화전의 흔적은 고한읍의 고토일 만항, 두문동지역에서 두위봉, 민둥산 등에 이를 정도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사북지역에서도 북일, 발전, 직전, 도사곡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줄도 몰랐을 정도로 산간오지였던 이 곳은 1950년대말 사북 도사곡에 50여호, 고한에 80여호에 걸쳐 7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살았으며, 구불구불한 임도에서 목재를 실어 나르는 산판트럭이 며칠에 한번씩 오가며 외부와의 통로 역할을 해주었다.

이 지역의 원주민이라 할 故 이세백 옹의 표현에 따르면, '10리에 집 한 채, 5리에 밭 한뼉'이라 할 정도로 화전민 부락이 넓게 퍼져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들 화전민들은 주로 옥수수, 감자, 콩, 메밀 등 밭농사를 지었으며 극히 일부지역이긴 하지만 논이 있어 벼농사도 지었다. 마름터(현 사북시장)와 고한 상갈래(현 고한 소방서)가 바로 최초의 벼농사 지역이었다.

전형적인 화전민 마을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곳은 사북 시가지에서 8km 정도 떨어진 직전리와 북일 지역으로서, 직전리는 원주민 70여호(450여명)이 살고 있었고,

북일마을은 100호(550여명)가 잡곡과 약초재배를 주업으로 삼았다.

정선군 탄광촌의 원주민들이었던 이들 화전민들은 60년대 3공화국 출범이후 화전 정리작업과 석탄개발에 밀려 차차 사라져 가고, 대신 1961년말 제정된 { 석탄개발에 대한 임시 조치법 }이 발효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광부들이 몰려와 새로운 이주민 단지로 변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이 지역에 남아 잡곡 농사와 약초 채취 등에 종사하다가 외지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자리를 잡게 된 원주민들이 현재 정선 탄광촌의 주요 문중이라 할 평해 황씨(북일), 평창 이씨, 풍기 진씨(범바위), 달성 서씨, 나주 나씨(직전), 제주 고씨 등 이다.

2. 일제와의 석탄광 개발

산간오지인 정선군 탄광촌에 엄청난 양의 탄맥이 있다는 사실은 일제시대에 체계적으로 조사되었다. 정선군의 탄맥이 속해있는 삼척 탄전지역의 탄층조사는 1926년경 일본인 素木卓二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 { 삼척탄전 조사보고서 }는 탐탄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체로 정확하였다고 한다.

일제는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석탄보유 광구를 지정하

한국노동자의 강제 동원 숫자

	34~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계
광업	1,225	2,735	2,714	1,494	4,943	11,914	14,989	40,044

자료: 석탄광업의 현실과 노동자의 상태(1991. 유재무.원용호 19P)

였는데, 이때 정선군 고한, 사북, 신동(예미와 함백) 지역도

수십 개의 광구로 나눠 지정되었다. 특히 일제는 전쟁물자 조달을 위한 직접 개발을 위해 지정된 광구에 대해 민간인 광업출원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석탄개발 전문회사로 〈삼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광구 개발권을 전담시켰다. 이때 가장 탄질과 조건이 우수한 장성탄광을 우선 개발하였는데 일본인 에구치 고우자이에몽(江口公左右工門)이 지휘하고, 실제 개발은 자원 전문가인 나이토 구마끼(전후 일본 석탄연맹 총재를 지냄)에 의해 이뤄졌다.

삼척탄전 지역 개발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조선인 광부들을 징용으로 끌어 탄광 개발을 시켰는데, 광부수는 1931년에 35,895명에서 1944년초에는 296,000명으로 증가되었다. 이 가운데 해방 직전까지 강제 동원된 탄광노동자 수는 4만 명에 이르렀다. 이때 끌려온 징용노동자들이 해방후 상당수 탄광지역에 정착하고, 이후 해방 이후 탄광개발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3. 해방후의 석탄광 개발

일제시대에 탄층조사와 광구설정이 이뤄졌으나 개발이 보류 되었던 정선지역의 대부분 탄광 광구는 해방 직후 미군정 시절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량 해체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 즉 6.25 전쟁 혼란기에 대명광업 주식회사 정명선이란 사람이 일제하에 만들어 졌던 삼척탄전보고서를 근

정선지역 철도 개설 연혁

노선	완공년도	관련 탄전	비고
영월~신동 함백	1957	동원탄좌, 삼척탄좌	대백선
함백~증산~고한	1966	동원탄좌, 삼척탄좌	대백선
증산~정선	1967.1	나전, 우전탄좌	정선선/박정희대통령참석
정선~나전	1969.10	나전탄좌	정선선
나전~여량	1971.5	나전탄좌	정선선
여량~구절	1974.12	우전탄좌	정선선
함백~조동	1977.4	동원탄좌, 삼척탄좌	함백선복선화
고한~대백	1977.	동원탄좌, 삼척탄좌	정암터널/대백선



석탄광 개발초기의 신동읍 광산촌 주택. 신동읍은 정선군에서 가장 먼저 석탄개발이 시작된 곳이다

거로 삼척과 정선군에 산재한 석탄 광구 보류 구역을 대량 해제하는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이로인해 정선군내 대부분의 광구에 대해 대명광업이 광업권을 출원하였다, 대명광업은 우선 광상의 부존여건이 좋은 황지 구역과 동고 구역만을 직영 개발하고 정선 지역의 광구는 지연과 혈연 등 친인척 인맥에게 광구를 임대 분양하였다.

이때 광구를 임대 또는 분양받아 개발한 덕대업자가 정선지역에만 26명(전국적으로 186명)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30명이 넘었다는 것이 덕대 관계자의 증언이다. 이 덕대업자들이 개발한 정선지역 초기 탄광들은 비교적 캐기 쉬운 노천 탄을 캐내는 형태였는데 이를 ‘쫄딱구텅이’라고 불렀다. 이런 형태의 소규모 탄광들은 1980년대까지 근근히 그 명맥을 이어왔다.

해방 이후 정선지역의 탄광개발은 1948년 영월읍에서 조양강으로 유입되는 의림천 상류지역인 신동(함백, 예미)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철도 건설과 병행하여 동남천 상류지역인 사북지역으로 옮겨지게 된다.

특히 영월~신동, 신동~고한, 증산~정선, 정선~구절리, 고한~태백간 정암터널로 철도 연결망이 급속히 구축되면서 사북, 고한과 인근 태백지역까지 탄광개발이 본격화 되고 운송기반이 크게 확충되었다. 이런 국가적 자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67년 1월 있었던 정선선 개통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정선군민을 격려하고 개통 테이프를 끊기도 하였다.

4. 탄광개발 이전의 교육기관 설립

정선지역에 근대식 교육제도에 의해 최초로 학교가 설립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정선관립보통학교이다. 이것은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의도에 의한 식민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해방이 되기 전까지 1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정선지역에 설립 유지되었으나, 중등교육 이

상의 교육기관은 단 1개교도 설립되지 못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는 정선지역에서도 더욱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인구가 적은 시골에도 적지 않은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는 일제 식민지당국의 우민화 교육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즉 양질의 교육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민통치의 용이성을 위한 일어 보급과 식민정책 홍보를 통한 강제노역 동원체제 마련에 목적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설립된 정선지역의 16개 초·중·고등학교

설립년도	학교명	소재지	비 고
1912. 3. 6	정선공립보통학교	정선읍	1910년대
1922. 7. 1	임계공립보통학교	임계면	1920년대
1923. 7. 31	화동공립보통학교	동 면	
1931. 5. 31	벽탄공립보통학교	정선읍	
1933. 4. 1	여량공립보통학교	북 면	1930년대
1934. 9. 29	예미보통학교	신동읍	
1937. 2. 20	남선공립보통학교	남 면	
1937. 4. 10	낙동국민학교	남 면	
1937. 7. 7	가수국민학교	정선읍	
1939. 10. 15	문래국민학교	임계면	
1940. 8. 28	남평국민학교	북평면	1940년대
1942. 4. 1	사북국민학교	사북읍	
1942. 4. 1	증산간이학교	남 면	
1943. 4. 1	광하국민학교	정선읍	
1943. 10. 5	조동공립학교	신동읍	
1944. 5. 15	윤치국민학교	신동읍	
1945. 3. 1	증산국민학교(승격)	남 면	

제 2 절 1950~1960년대 석탄광 개발초기와 탄광촌의 형성

1. 탄광개발 초기의 모습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 직후부터 정선지역에서는 덕대광산 형태로 소규모로 탄광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5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법 일정 규모가 있는 탄광들이 등장하게 된다.

1954년 정선군 남면에 묵산광업소가 문을 열고, 1956년에는 고한의 경일탄광이 채탄을 시작한 것이 본격 개발의 신호탄이었다. 1962년 〈석탄산업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만들어지면서 민간 광산업자들이 소형탄광으로 운영하던 정선지역의 탄광개발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1962년 4월에 만들어진 동원탄좌와 1962년 12월에 문을 연 삼척탄좌는 각각 20여개의 광구를 가진 대형 탄광들로, 이후 40년동안 사북읍과 고한읍을 중심으로 ‘탄광 중심지’를 형성했다. 실제로 이후 행정구역 개편과, 철도 및 교통 시설 확충, 시가지 형성은 이 두 탄광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동원탄좌와 삼척탄좌 이외에도 경일, 정동, 세원(동고) 등 독립 광구를 가진 중소 탄광 등 20여개의 소형 탄광들이 있었으나 이들 대형 탄광에 비교될 바는 아니었다.

1960년대 들어 탄광개발로 외지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체계나 도시망은



1960년대 고한지역의 탄광촌 모습



사북읍 동원탄좌 인근의 탄광촌(굴말지역)

원시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북읍과 고한읍 탄광촌의 유일한 공공기관은 사북 초등학교 뿐이었고,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면서 갖가지 사고와 폭력 등이 난무하였다.

1964년 정선경찰서 사북지서가 생겼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채 일부 지역, 특히 고한의 박심리 지역처럼 산골 오지의 탄광마을은 폭력배들이 장악하였다고 한다. 사북지서가 생긴 이후 매일 20여건의 사건 사고를 처리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폭력, 사취사건 등이었다.

이들 폭력배들은 박정희 정권의 사회정화정책을 피해 산골로 숨어들었던 이들로 탄광이 활성화되면서 또 다른 토착세력으로 자리잡게 된다. 일부 탄광에서는 이들을 하청 업체, 덕대업자로 고용하면서 자신들의 보호막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2. 밀려드는 사람들과 교육 현실

1960년 후반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한 인구는 매년 20% 이상의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이면서 도시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팽창했다. 1960년대부터 연간 20%의 인구증가를 보인 사북 고한은 10년만인 70년대초 3만2천명을 넘어서고 1980년에는 5만1천명에 달하게 된다. 당시 속초시의 인구가 6만5천명이었음을 비교해 보면 읍 단위 사북, 고한 지역의 인구 규모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민족교육제도에 대한 열망은 정선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2년 정선군 교육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정선군 교육구청이 개청 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육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전형적인 산간 농촌 마을에서 석탄산업의 본격 개발로 인구증가와 도시화는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정선지역 교육계 또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탄광 개발 초기였던 60년대 말에 광부들이 몰려들면서 연이어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1941년 개교되었던 사북초등학교 외에도 1953년에 설립된 만항초등학교부터 갈래초등학교(63년), 고한초등학교(68년), 운락 초등학교(69년)등이 연이어 개교했다. 또 다른 탄광촌인 신동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 학교들은 60년말 광부 자녀의 비율이 70%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얼마나 급속한 인구유입이 이뤄졌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3. 개발 초기 정선군 탄광촌의 광부로 온 사람들

탄광노동자 스스로가 139개 직업중 138등이라 자조할 정도로 탄광노동은 힘들고 어려운 직종이고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60년대부터 탄광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는 탄광노동자가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단가가 높았고 단시간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세간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탄광회사 입사에 있어 기술, 학력 제한이 없었고 사택,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유인기제가 존재하였던 것도 취업을 결심하는 요인이 되었다.

사북읍의 자료에 따르면 정선군 탄광촌의 원주민은 5%에 불과하고 95%가 1960년대 이후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워낙 많은 곳에서 모여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13도 공화국』이라고 불렀다. 탄광 개발 초기 광부로 온 사람들의 유형은 크게 3~4가지로 나뉜다.

- ① 화전농을 포함하여 인근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
- ② 해방 이전 징용광부 및 탄광 개발 기술자들과 함께 온 노무인력들

③ 1970년대 초반 국토개발단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남은 사람들

④ 자영업 및 제조업에 일하다가 해고되거나 실패하여 온 신규 취업자들이다.

1960년대에는 ①, ②번 유형이 대부분이었으나, 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에는 ③, ④번 유형의 신규 취업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상시적인 광부 부족으로 탄광회사들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채용한 인력들도 상당수 인데, 이 경우 입사과정에서 알선회사에 수수료를 주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처음 탄광에 올 때에는 1년이나 늦어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돈을 모아 떠날 계획으로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살아갔다. 개발 초기 매우 심각했던 것은 주거난과 용수난이었다.

개발 초기 매우 심각했던 것은 주거난과 용수난이었다. 동원탄좌와 삼척탄좌 등 대형 탄광에 일하는 광부들조차 극히 일부만이 급조된 사택에 입주할 수 있었을 뿐 나머지 중소탄광이나 하청탄광 광부들은 비싼 돈을 주고도 방 한 채 얻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산비탈 마다 무질서하게 판 자집이 들어섰고 심지어는 움막이나 토굴을 파서 가마니 거적을 대문삼아 일하는 광부들까지 있었다.

더구나 물 사정이 좋지 않아 주민들은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하느라 마을마다 공동우물터에서 부녀자들끼리 수 십미터씩 줄을 서서 시간제 배급 물을 길어대었다.

물을 얻기 위해 부녀자들이 날마다 우물가에서 싸움판을 벌일 정도였다. 특히 높은 고지대 판자촌에 사는 광부 아내들은 수 킬로씩 시내 쪽으로 내려가 물을 머리에 이고 올라가는 고역의 생활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대규모 사택건설을 시작한 9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4. 파괴되는 환경 문제

탄광개발 초기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탄광에서 발생

되는 폐석의 무단 방기였다. 통상 폐석은 채굴과정에서 15%, 선탄과정에서 15%등 생산량 기준으로 약 30% 규모의 폐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으로 이 폐석은 일정한 장소에 쌓고 분진 및 유실 방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토 및 식재하여 광해를 방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광해 복구 사업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광 개발에만 치중하던 개발 초기에 이러한 법적 조치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각 탄광마다 폐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계곡을 이용하여 폐석을 쏟아 붓고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이는 단순히 계곡수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떠나 대규모 홍수를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정선지역 탄광개발의 특징

정선지역 탄광개발의 특징은 덕대로 표현되는 소형탄광 개발에서 대형탄광 개발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인근 태백의 장성광업소와 영월의 마차광업소가 초기부터 광구에 대한 집중개발이 이뤄진데 비해, 정선지역은 광구를 임대 분양 개발하는 방식의 덕대제(소형탄광)이 처음에 유행했다.

덕대제는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개발자(덕대)에게 일정 비율의 덕대료를 받고 빌려준 형태이다. 보통 계약기간은 6개월 내지 길어야 3년이었고 덕대료는 생산량의 20~30%에 달하는 고액이었다. 개발과정에서 덕대 업주가 큰 탄맥을 발견하면 덕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다반사 였다. 때문에 광업권자는 부광대는 직접 개발하고 난개발 광구는 덕대를 통해 개발하면서 고액의 임차료를 챙겨 엄청난 부를 챙길 수 있었다.

이 덕대제는 당시 법으로도 불법이었으나 관례적으로만연되어 있었고 불로소득과 중간착취, 광산 사고에 대한 배상 의무 실종, 체불임금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다.

이 불법 덕대가 심각한 사회현상을 일으키자 정부는 1973년과 1981년 광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덕대에 조광권을 줌으로써 양성화 시켰다.

양성화 이후 조광료는 약 5%로 낮아졌고 조광으로 독립된 탄광회사들은 이후 중견 탄광으로 1980년대 까지 운영을 계속하게 되었다. 1970년대말까지 동원탄좌는 태흥, 동보, 삼왕 등 8개의 조광업체를 거느리고 있었고, 삼척탄좌는 인동, 경일탄광은 경산, 세원광업소는 달성 등을 조광업체로 거느리게 되었다.

덕대와 조광의 차이는 결국 생산된 석탄의 판매 문제인데, 덕대업자는 석탄 판매권한이 없어 모광에 예속되었으나 조광권자는 광업권은 없지만 석탄의 생산과 판매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어 한결 나은 조건에서 석탄생산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말 일시적으로 탄광경기가 침체되면서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조합이 직접 탄광을 인수 관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사북의 신평탄광, 태백의 우성탄광 등에서는 탄광업주의 부도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이 직접 조광권을 갖고 생산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한편, 1960년대 개발 초기 탄광마다 석탄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 특히 1966년 1월 개통된 고한역에는 저탄장 확보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했다.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월 10만여톤의 무연탄을 수송하게 될 고한역이 개통을 앞두자 동고, 삼척탄좌와 인근 덕대업체 10여개가 저탄장 부지를 선점하기 위해 주먹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실려있다.

즉 고한역 개통 10여일전부터 야음에 고한역 인근 부지에 무단으로 트럭에 탄을 싣고와서 빈 터에 쌓아놓고 선취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저탄장 선취권을 둘러싸고 강동탄광등 4~5개 탄광의 경비들이 주먹다툼까지 벌이게 되었고, 이를 보다 못한 고한역 직원들이 저탄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화차를 배정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다. 당시 이



석탄 폐석을 나르는 모습

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고한 지역의 저탄부지가 3천여평에 불과하고 종합저탄장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한역과 사북역에는 1970년대 초반 종합저탄장이 만들어져 탄광별 저탄과 화차배정을 하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초반 주요 석탄운송방법이었던 차량(트럭)들이 당시 100여대가 필요했으나 40여대만 가동되어 무연탄 수송에 큰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이처럼 차량부족이 발생한 것은 당시 운수업자들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대폭 타지로 이동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고한, 사북지역의 길이 험해서 차의 수명이 절반밖에 안되는데다가 군소탄광들의 운임비 체불이 심해져 운행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60년대 후반 기차역의 확충이 이뤄진 후에야 잠잠해 졌던 것이다.

6. 탄광개발 초기의 시장 형성

일제시대 이후 광산노동자들은 관행상 임금을 쌀로 받았고 그것은 사북, 고한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구나 1960년~1970년대는 먹고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생필품 외에는 다른 상품들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작은 규모의 노점들 중심으로 장이 섰다.

초창기 사북, 고한 장시에서는 광부들이 임금을 쌀로 받았기 때문에 주로 쌀과 다른 생필품의 교환이 이뤄졌고 쌀과 화폐의 교환도 성행했다. 특이한 점은 사북, 고한이 석탄의 산지임에도 장날 주로 교환되는 상품에 쌀감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산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소비량도 증가하자 사북, 고한을 들르던 상인들이 시장주변에 정착했고, 소규모 소매상등을 경영하면서 시장이 자리잡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비록 소매상이라고 하지만 노점수준을

갓 벗어난 정도로 가판을 차리고 담배나 채소 같은 생필품 등을 주로 팔았다. 이런 형태는 1969년 사북에 대규모 소매 시장이 문을 열 때까지 계속되었다.

7. 탄광 광부들의 저항적 태도에 대한 설명

한편, 개발 초기 탄광촌의 독특한 문화로 형성된 것이 비순응적인 광부들의 태도이다. 일반 직업과 달리 탄광 막장은 무언의 저항문화 같은 것이 발달되어 심지어 작업을 지시하는 감독들이 광부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막장에서 태업을 벌이고 작업량을 속이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때문에 탄광회사들이 현장 감시원인 암행 독찰대를 운영하는 등 노무 및 생산관리에 곤혹을 겪었다. 이와 관련하여 석탄공사의 모 부장은 이를 일제하 탄광노동의 성격을 이어받은 전통적인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즉 일제의 생산 독려와 강제노동에 대해 한인 광부들이 일본인 기술자와 관리자를 막장에서 속이는 것으로 애국했던 것이 습관화, 풍조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종의 저항문화가 열악한 노동조건과 결합되면서 탄광 광부들의 투쟁이 매번 폭발적인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제 3 절 1970년대 석탄광 본격 개발과 탄광촌의 모습

1. 급속한 도시화와 석탄 개발시설의 확충

1970년대 들면서 국가의 석탄산업 지원정책이 증가하면서 탄광도시 정선군은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시기 국가는 두가지 방향에서 석탄산업에 대한 대대적 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하나는 대단위 탄좌 육성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인 생산기반 구축이었다.

또하나는 단기적으로 2차 석유파동 이후의 증산극대화를 위한 지원정책이었다. 특히 이런 지원정책 보조금의 55%가 개별 탄광에 대한 직접 지원이어서 영세 소규모 탄광의 난립과 저질탄 생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어쨌든 이런 증산일변도의 지원정책을 계기로 탄광지역은 급속히 도시화 되기 시작하였고, 중소 영세탄광 중심의 개발이 극대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1970년대 후반들어 국가적으로 경기 부양, 특히 건설업 분야가 호경기를 타면서 탄광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일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경우 1969년에 936명이던 종업원 수가 1979년에 3,107명으로 3배이상 급증하였으나 만성적인 광부 부족으로 허덕였다.

현재 사북, 고한, 신동의 시가지 골격이 잡힌 것도 70년대였는데, 당시 40세대 이상의 사택촌이 잇달아 만들어지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주거공간이 확대되면서 동원탄좌보건원등 의료기관과 새마을 금고, 문화관 등 부대시설이 비약적으로 확충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정선군 전체의 인구도 1978년 최고점(139,862명)에 달할 정도로 최고의 활황세를 보인 시기이다.

2. 교육체계의 본격 구축

1960~1970년대 들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부로 몰려 오면서, 주거문제와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1970년대 이후 급등하는 인구조로 인해 신설되는 학교가 급격히 늘었으며, 일부학교에서는 2부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초등학교 7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총95개의 학교가 설립 운영되었다. 1966년 세워진 사북중학교를 비롯해서 고한중학교(1974년), 사북고등학교(1971년), 고한중고(1978년)가 세워져 중등교육을 담당했는데, 이 학교들은 200명에서 많게는 1,400명까지 많은 학생들을 받았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교육시설이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자 초등학교가 사택단위로 급속히 지어지게 된다.

이들 학교들은 적게는 200명 많게는 800명 이상의 학생이 다녔다. 학생의 70% 가까이가 광부자녀라는 점에서, 탄광촌 사북, 고한, 신동 지역 등에서 석탄산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당시 학교에서 10~20km 떨어진 산골마을에 사는 학생들은 등하교때 1회씩 운영되는 버스를 타고도 1~2시간씩 걸어 다녀야 했다. 학교 외에 도서관이나 일반 사교육 시설은 거의 없었고 태권도장과 권투도장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나 여타 휴식 문화공간이 전혀 없었다.

아이들은 TV나 만화를 보면서, 또는 사택 인근에 위치한 시커먼 저탄장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 1970년대 이 지역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이 발표한 논

문에 따르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10점 정도 떨어져 한 학급에 우등생이 한 명도 안나 오는 경우도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3. 열악한 주거환경

탄광촌이 본격 개발된 초기, 사북 고한 등 정선지역 탄광촌은 판자집이 궁궐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주거난에 시달렸다. 1970년대초 탄광이 AID 원조와 국고보조로 급하게 사택을 지으면서 숨통을 돌리긴 했으나 이 사택 역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그야말로 ‘엉덩이만 들어밀고 살 수 있는’ 집이었다.



석탄더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보통 5~8평에 방 2개, 부엌 1개가 달린 가구가 3~5세대 연립형으로 지어진 것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블록벽으로 급조되었다. 화장실과 우물은 공동으로 사용되었고, 방음이나 방습, 상하수도 등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광부들은 집안 공간을 넓히기 위해 탄광에서 나온 폐갱목을 이용하여 바깥에 덧붙이기(가작)를 했고,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탄광촌 사택은 시커먼 움막같은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나마 이런 사택에 입주하는 것만도 큰 행운일 정도로 만성적인 주거난에 시달렸다.

사택촌은 마치 집단수용소를 연상케 한다. 일자형 연립주택이 100-200동씩 집단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1동에는 5가구가 들어있고, 1가구당 주거면적은 5-6평정도로 방이 1-2개에 부엌이 1칸 달려있다. 사택의 구조를 보면 이불이나 옷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벽장과 작은 쪽마루,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엌이 연결되어 있다.

각 세대마다 한 장의 시멘트 벽돌로 나뉘어져 있고, 천장은 칸막이도 없이 얇은 합판으로 이어져 있어 전혀 방음이 안되어 옆집의 말소리가 들릴 지경이다. 1980년 이후에 지어진 사택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한 칸씩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수도는 공동우물을 이용했다. 지대자체가 높아 식수 및 생활용수가 늘 부족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였고, 광부들에게 필수적인 목욕탕 시설은 1970년까지 전무하였다.



탄광촌은 1970년대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광부들이 탄광에서 입은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광부의 아내들은 집에서 씻을 수 있도록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야 한다. 1973년 동원탄좌의 중앙사택이 지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1978년 사북2리와 4리에 새마을사택이 건설되고, 고한에는 만항사택, 북부사택이 건설되었다. 1970년대 건설된 사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광부들을 수용하기 위해 날림으로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열악한 사택들도 대형탄광의 50%도 채 못되는 노동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노동자들과 군소탄광이나 덕대 하청 광산의 노동자들은 전세나 사글세 방을 전전했다. 주거난이 심각해지자 시내 일원에 민박형 하숙집이 성행했고, 대부분의 여인숙들은 2평짜리 방 한칸에 5~6만원을 받으며 운영했다.

탄광지역 원주민들은 집을 단칸형으로 개조해서 광부들을 받기에 급급했고 지역마다 대형 유명 하숙집들이 성행

했다.(사북의 제일하숙, 영동하숙, 고한의 진밭골 하숙 등) 산비탈을 따라 아니면 개울을 따라 평스레이트로 막아 방을 만든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자집에, 수도는 거의 없고, 공동우물이나 산에서 내려온 물을 막아 공급받는 상수도가 전부였다. 물도 자신이 원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 번 줄을 서서 받는다.

겨울에는 가뭄이 심해 하루에 말통으로 두통정도 받은 물로 식수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 방값은 사글세로 1년치를 먼저 치르고 다달이 깎아가는 방식으로 지불한다. 화장실은 불결하기 짝이 없는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하고, 시냇물은 탄가루와 갯에서 퍼낸물로 오염되어 세탁이나 식수로 거의 사용이 불가능했다.

물이 부족하다보니 언제나 공동우물에선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은 그전으로부터 살던 사람들에게서 텃새를 당하고 개인 집에서 주인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다가 사택이 배정되면 이사를 간다. 이처럼 열악한 사택과



일자형 사택군

주거공간은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는 공간, 노동의 재생산 하기위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광부가족들의 생활여건은 아파트가 건립되기 시작한 1980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1970년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탄광촌 부녀자들의 생활력은 대단해서 마을마다 갖가지 부업도 이뤄졌다. 특히 개발초기인 1970년대에는 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어 뜨개질 부업과 가방, 자크 부업이 소일거리로 유행했다.



탄광촌의 여성용 공동화장실

동원탄좌 새마을 사택 부녀회(회장 김분년)는 87명이 뜨개질 부녀회를 만들어 같은 탄광에서 사망한 광부 유족들을 돌봐 지방지에 크게 소개되기도 하였다. 과도한 가사노동 중에도 광부의 아내들은 복지회관이나 알음알음으로 부업을 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홀치기나 편물이 1980년대에는 구슬 꿰기나 꽃만들기, 봉제인형 만들기를 1990년대에는 마늘까기 등이 있었다. 좁은 방안에 본드냄새나 먼지를 날리며 남편이 자는 시간을 피해 밤을 새기도 했다.

힘들게 번돈을 하청업자에게 떼이기도 하고, 잔돈푼을 아껴 사택아줌마들 끼리 반지계나 그릇계를 하여 살림을 장만하기도 했다. 돈계를 하다가 오야가 부도를 내고 야밤 도주하는 바람에 빚을 크게 지기도 했지만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보다 계를 통해 돈을 모으는 것이 1990년까지도 탄광촌 여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계는 돈을 모으고 사람을 사귀고 친목을 도모하는 여성들의 인간관계를 맺는 장이기도 하다.

4. 교통망과 시장의 형성

1970년대 초반 탄광지역에는 하루에 시내버스가 60여회 운행되었으나 단선형 계곡에 만들어진 도로에만 운행되어 집단 사택지 주민들은 10리 이상을 걸어 내려와 버스를 타야 했다. 속칭 지장산, 화절령 마을의 5천여 주민들이 시내버스 운행을 수십차례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결국 각종 생필품 구입을 위해 도보로 2시간여씩 사북 시내를 오르내려야 했다. 또한 외지로 이어지는 교통망도 형편없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도 여객열차는 왕복 7회만 운행되었고, 버스는 서울 3회, 원주 3회, 춘천 1회로 운행되었는데 이나마 비포장 도로구간이 많아 큰 불편을 겪었고 이용률도 낮았다. 특히 태백시 10만, 사북·고한의 6만, 함백의 2만명 인구가 몰리는 주말이 되면 교통량은 폭주하게 마련이다. 공무원들의 95%가 외지에서 온데다가 탄광 종업원들 역시 귀성하거나 당시 유행하던 낚시 등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교통난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 지역 교통의 또 하나 특징은 택시수의 절대 부족이다. 고한 사북의 6만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는 60여대였고 택시 부족으로 인한 운전기사의 횡포도 극치를 이뤘다. 그런 관계로 1970년대말 자가용 승용차나 지프, 트럭의 불법 운행이 사적당국에 고발되는 일이 빈번했다.

단골손님 위주로 자가용 승용차와 지프가 불법으로 손님을 실어 날랐고, 트럭들은 개인차 임에도 회사와 운단계약을 하고 회사이름을 버젓이 단체 위장 운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불법 교통과 횡포에는 당시 이 지역에 터잡고 살던 폭력배들이 결합되어 경찰은 매우 소극적으로 단속하



1980년부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었다

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1970년대 탄광촌의 시장형성도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60년대만 하더라도 고한과 사북에는 외지 떠돌이 장사꾼들이 사택 부락을 다니면 물건을 팔다가 유입인구가 조금씩 늘어나자 5일장 형태로 정기 시장이 서게 된다. 그러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장에 노점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런 노점 형태의 노천시장이 더욱 비대해지면서 사북 지역에서는 1973년 논의였던 마름터에 대규모 슬레이트식 건물을 신축하여 사북시장 상인들에게 불하하면서 현재의 사북시장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사북의 경우는 비교적 시장이 빨리 자리를 잡았지만 고한시장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고한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은 애초 상갈래에 있었지만 1972년 홍수로 인해 시장이 모두 떠내려 가게 된다. 복구과정에서 시장이 중갈래로 이동하지만 이것 역시 1979년 8월 홍수로 인해 상가 1백여 세대가 모두 유실되고, 6개월 정도 소요된

복구사업으로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인 연립상가로 57동이 건설되어 지금의 시장모습으로 갖추게 된다.

상설시장과 별개로 탄광촌에는 소위 간조장이 서게 되는데, 이는 매월 월급날에 사택주변에 일시적으로 장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특히 간조장에는 외지 장사꾼들이 상설시장보다 훨씬 싼 값에 물건을 판매하면서 종종 시장 상인들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5. 환경파괴의 일상화

사북보다 협곡형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고한지역은 1970년대 빈번한 홍수피해에 시달렸다. 1972년 대형 홍수때는 갈래 초등학교가 침수되어 교실이 유실되었고 주택가 1백여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1979년 8월 홍수에서는 고한시장과 가옥 백여채가 유실 및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다. 79년 홍수에서는 이재민 2,360명, 사망 6명 등 인명피해가 받

생하고 고한 시장이 몰바다가 되었다. 이때 홍수 피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인근 경일탄광(대표 신경록)의 폐석이었는데, 당시 경일탄광의 부실한 폐석관리로 고한 시장 위편인 당목골에 쌓여있던 폐석이 하천을 메우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로인해 지역상인들이 경일탄광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석방기는 신동지역(함백, 예미)과 사북지역 등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고한과 사북 남면으로 이어지는 지장천은 원래 강폭이 50미터였으나 폐석방기로 인해 하상이 높아지고 하폭도 15미터로 줄어들면서 홍수피해를 몰고 왔다. 하상이 높아지면서 함백과 예미, 고한 시장등은 하상보다 시장위치가 낮아져 비가오면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수원 확보와 오염이었다. 1970년대 광부 부인들에게 물을 얻는 것은 전쟁터나 다름 없었다. 하루에 서너시간씩 제한 급수를 하던 시절이라 물시간이 되면 우물마다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또한 상수원 관리가 안되어 대형 질병이 유행되기도 하였다. 79년6월 사북의 지장산 사택에는 학생들과 주민 90명이 두통과 두드러기, 발열증세를 동반한 괴질에 걸렸다. 조사 결과 지장산 사택에 설치된 간이 수원지에 비산 탄먼지와 빗물이 섞여 지렁이가 생기는 등 불결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다가 이 우물을 마신 주민들이 병에 걸린 것이다. 이

처럼 급속하게 개발된 탄광촌은 일상적인 환경파괴에 따른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 광부와 지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었다.

구사택에서 살았는데 무지 높았어, 시내까지 내려와서 물 길러가지고 와서 살았어. 빨래도 물 나오는 데 가서 해가지고 오고, 물도 바가지물, 초롱을 짝 놓고 차례차례 놓고 받았어. 지금 사람들은 설명이 안되, 끈이 안들어. 수도물이라곤 생각도 못했어. 공동수도 생겨서 여럿이 빨래도 하고, 길어서 먹었어. 사택에서 나와서 세집이 살고 있었어. 수도는 하나뿐이고, 우물가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빨래다리도 날아가고, 대가리도 쥐뜯고, 뭐



탄광촌 여성들의 빨래 모습

그랬어. 지지고 볶고 살았어. 없는 물에 초롱을 놓고 지키고 있으면 차례가 되어도 자기가 먼저 받아가지고 가고, 한참 있다가 받아왔어. 사북사택 났을때도 공동수도가 있어도 물이 잘 안나왔어. 도랑가 가면 우물이 있었어 두레박으로 퍼서 먹었어.

(권○○, 58세, 60년대 후반부터 사북에서 거주)

밤낮으로 물 때문에 싸웠어. 물도 초롱을 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다 어느 암체같은 년이 바쁘다고 남 물동이 뒤에다 살짝 갖다 놓는 거야. 그때는 물초롱이 누구건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박생이 꺼들고(머리카락 붙잡고) 싸우는 거야. 그 물 한초롱 받을라고, 뭐가 제일 원이냐면 강물 훔칠 내려가고 물 맑는데 가서 물 실컷 쓰는데 원이었어. 빨래를 해도 아주 빨래가 꼬질꼬질해요. 빨래를 깨끗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물이 없어가지고, 사택이 한 동에 다섯집이 살아요. 다 젊은 새댁이야. 물이 없어 힘드니까 누가 “야, 내일 빨래 하러가자” 하면 아를 해업고 점심을 싸가지고 가. 어떤 집은 김밥, 어떤 집은 감자떡, 어떤 집은 고구마 삶어 가지고 소풍가듯이 가는 거야. 빨래를 한보따리씩 이고, 음식을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거야. 개울에서 내려가지고 빨래를 해서 돌에다 짝 열어. 한참 지나면 마르잖아. 그러면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집에 오는 거야. 또 회사에 목욕탕이 없어서 신랑들이 집에 돌아오면 새까매 가지고 아들이 아빠를 몰라. 우리도 아저씨가 우리집 앞에 와야지 알지. 안그러면 몰라. 다 똑같거든. 새까매가지고... 1980년에 그일 겪고 나서 목욕탕 지어지고 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

(최○○, 50세, 서울 거주)

6. 급증하는 산업재해와 여성의 이종고

1970년대 광산이 번창하면서 탄광의 고질적인 도급제 임금제도와 열악한 작업조건은 많은 사고들을 불러왔다. 도급제는 말그대로 작업량만큼 임금을 책정한다는 임금제도로서 광부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동강도를 높여 많은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도급제는 많게는 10여가지 기준이 적용될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있고, 이를 적용하는 권한이 막장감독에게 주어져 있어 광부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즉 임금인상 시기가 닥쳐오면 3개월전부터 의도적으로 도급단가를 낮게 적용한다던가, 감독의 눈밖에 난 사람에게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통제장치로 작용했던 것이다.

실제로 매년 임금 인상율이 20%를 넘어선 1970년대의 경우 실질 임금인상율을 10%대에 불과한 상황이 매년 발생했는데 이는 도급제의 악의적 폐단 때문이기도 하다. 이 도급제와 부비끼로 알려진 부당한 검수제도로 인해 광부들은 자신들의 노동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구조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임금과 노무관리의 통제, 그리고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인해 1970년대 탄광들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6배에서 10배 이상의 재해 빈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일례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경우만 보더라도 막장



탄광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는 일상에 가까웠다

1970년대 정선지역의 대형 광산 사고

일자	광업소	사고내용	재해자
73.11.24	동고탄광	가스폭발	17명 사망
74.05.28	삼척탄좌	출수사고	18명 사망
79.04.14	함백광업소	화약폭발사고	26명 사망

사고로 순직한 광부들이 100명을 넘어섰으며(년평균 11명), 일반 재해자만 해도 2,800명이나 발생하였다.

이 수치가 산재처리된 공식적인 통계이고 소위 자체공상으로 처리된 숫자가 2~3배였던 관행을 감안하면 매년 300명 이상, 즉 종업원의 12% 정도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안전조치에 대한 투자없이 무리한 고강도의 막장노동에 내몰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대 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는 산재로 인정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그나마 고통스런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였다. 애써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월급의 70%정도인 휴업급여가 지급되어 가정경제는 어렵게 유지 되었다.

애기아빠 다쳤을때 말도 마요. 얼마나 회사에서 애를 먹이는지. 애기아빠는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전부터 있던 병이라고 산재처리도 안해주고, 영월의료원까지 가서 아는 못사님 통해서 겨우 산재처리 했는데, 나중에는 영구장애가 아니라고 보상도 안 해줄라 그러고, 결국은 내돈으로 원주 기독병원가서 정밀검사 한게 잘 나와가지고 변호사 한테가니까 7천은 나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매몰사고(1974년 5월 12일)



여성중심의 선탄작업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되서 그냥 회사랑 합의 봤어요. 사람이 다치면 치료를 해주는게 당연한데 산채처리도 잘 안해주고, 나중에 장애가 남아도 돈을 안 줄라고 질질 끌고, 해도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광부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는지 몰라. 진짜.

(주○○, 43세, 비디오 가게 운영)

1992년에 아저씨가 사고가 나서 10시간 넘게 있다가 나온적이 있었어요. 결혼한지 7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가지고 퇴직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려서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그래요. 갑방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알려 주지도 않고, 나는 알 수가 없는게 어떻게 가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는지. 여섯 사람이 갇혔는데 나만 회사에 왔더라니까요.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 기가 막힌 거지. 사고가 나면 가족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죽거나 그러면 자기네 마음대로 할라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회사에 가니까 사무실에서 재떨이에 담배가 조금씩

피우다 끈게 하나 가득이더라고. 그런데도 나보고 괜찮다고 기다리래요.

(권○○, 46세, 고한 중앙아파트 거주)

광부 부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쌓인 피로를 술로 푸는 남편들에 의해 가정폭력도 심하였고 이로 인한 가출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엄마가 없는 가정이 늘어갔다. 광부생활 오래하다 보면 부인과의 성생활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가출과 귀가가 반복되어도 받아들이고 사는 광부들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은 거의 없는 지역에서 가사노동과 자기상실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술과 화투등 퇴폐적인 방법밖에 없었다. 1970년대 춤바람이 탄광촌



동원탄좌 직영의 식육공급소

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정해체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회사에서는 광부의 아내들을 탄광에 입갱하게 하여 광부들의 작업장을 직접 보여주고, 회사체육대회를 가족과 함께 치르기도 하였다.

사택별로 단합대회를 하기도 하고, 1년에 1~2번정도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단체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국민학교의 운동회는 가족들이 함께 참가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역운동회가 되었다.

7. 기타 변화된 사회상들

가. 탄광촌의 휴가_새로운 사회 변화상으로 등장

매월 격주로 쉬면서 28~29일 근무의 중노동을 했던 광부들에게 여름 휴가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재충전의 기

회였다. 탄광회사들이 최초로 여름휴가를 실시한 것은 1978년 여름으로, 4일간의 집단휴가를 실시하였다. 또 각 탄광별로 휴양열차와 버스를 운행하여 휴가차량이 마치 귀성차량인 듯 북적이기도 하였다. 탄광이 하계휴가를 가게 되면 모든 시장 상가들이 동시에 휴업하여 일시에 텅빈 도시로 변한 것도 탄광촌만의 특별한 현상이기도 하다.

나. 탄광촌의 외상장부 - 인감증

사북, 고한지역은 워낙 고립성이 강한 지역이라 물가가 보통 타지역에 비해 20-30% 비싸지만 탄광이 왕왕 돌아가던 때에는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고 시장도 그만큼 활기를 띠었다.

특히 처음 광부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광부와 광부아내의 사진이 나란히 붙은 인감증이 발행되었는데 거의 모든 가게들이 회사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인감증만

있으면 외상으로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었다.

상인들은 한달동안 인감증으로 거래된 것을 노조나 회사를 통해 월급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었고 그런 중에 회사와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금으로 거래되지 않고 외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과소비를 부추기기도 하고, 계속 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기도 하였다. 그때에 돈을 벌은 상인들은 외지에 집을 사고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인감증을 내워서 옷도 외상으로 사고, 고기도 외상으로 사고, 돈에 신경을 안써, 월급탈 때 다지하고 나오니까 처음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월급이 적지, 다지하고 나오니까, 돈이 적었어.

(최○○, 50세, 사복사건때 29세)

신랑이 인감증을 가지고 왔는데, 내사진하고 신랑사진하고 나란히 붙어있더라고...

그걸 들고 약국에 가면 약주고, 식육점에 가면 고기 주고, 신발가게, 옷가게, 안되는데가 하나도 없는거야. 어떤 아줌마들은 물건 안사고 산 것처럼 해서 돈도 받고...처음엔 신기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물건도 사고 그랬는데.. 월급 탈 때 너무 허무하니까 나중엔 안하게 되더라구..

(김○○, 53세, 75년 결혼, 고한 부금소 거주)

다. 그밖의 탄광촌의 다양한 속설들

탄광촌에는 많은 금기사항,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아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아침 일찍 여성이 바깥출입을 하는 것은 물론 그릇을 깨거나 심지어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해서 광산에 보내면 안된다고 선배아줌마들은 가르친다. 이러한 금기들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보다는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탄광의 작업조건을 개선하는데 해결방법을 두지 않고 단지 여성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제점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해서 처음에 이곳에 오니까 해서는 안되는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식전에 남의 집에 가면 안되고, 아저씨들이 출근할 때

그앞을 지나가도 안되고, 특히 출근 버스 곁에는 얼씬도 하면 안되는 거라. 출근하기 전에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해서도 안되고, 심지어 그릇을 깨도 재수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자들은 재수가 없고 부정을 타서 사고가 난다는 거지. 사실은 탄광일이 위험해서 일어나는 사근데, 모든 탓을 여자로 돌리더라고요. 이래저래 여자만 죽어나는 거지.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걸 안 믿었는데 주위에서 하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김00, 39세, 닭집운영)

그밖에 탄광촌에 떠도는 속설들도 많다.

■ 막장의 쥐는 쫓아내지 않고 고시레 한다 :

막장의 위험을 먼저 알려주는 쥐에 대한 배려를 의미

■ 채탄 광부 1명에 반짝구두 5켤레다 :

영세탄광 업주들이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비꼰 속설

■ 지나가던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

탄광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의미

■ 탄광 돈은 햇빛만 보면 녹아 버린다 :

막장에서 힘들게 벌었지만 너무 쉽게 쓰는 생활풍조를 비유

■ 광부는 두겹의 하늘을 이고 산다 :

막장 노동의 힘들음을 표현한 말

■ 하늘이 삼천평/ 앞산과 뒷산에 빨래줄을 매단다.

깊은 산간오지에 개발된 탄광촌의 모습을 표현한 말

■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없이는 못산다 :

포장이 안된 사택과 도로를 다니려면 먼지때문에 반드시 장화를 신어야 하는 환경여건을 빗댄 말

제 4 절 1980년대 석탄광의 변성과 탄광 공동체의 변화

1. 1980년대 상황 개괄

1980년대 강원도 정선군 탄광촌의 극명한 모습을 전국 민앞에 드러낸 것으로 시작되었다. 소위 1980년 사북사태가 그것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탄광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1960~1970년대 탄광 개발의 허상이 드러나면서 고도성장에 멎든 탄광근로자의 삶을 조명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들어 국가는 탄광근로자의 복지문제에 정책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아파트 건립과 복지회관 신축, 장학금 지급 등 국가적 배려가 깊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86년을 기점으로 석탄생산 과잉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정부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고, 89년부터 합리화정책을 전격 시행하게 된다.

1980년대 초반의 급격하고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반면 불과 몇 년 뒤인 하반기 부터는 생산량의 감축과 종업원 구조조정, 이에따른 노사 갈등 증폭 등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전반적인 위기탈출을 위해 탄광회사들이 하청업체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탄광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기도 하였다.

동원탄좌의 경우 1980년대 10년간 사망자가 134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막장사고가 빈발하기도 하였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탄광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640명에 이를 정도였다. 한편 진폐 환자 및 사망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도 1980년대의 한 특징이다. 진폐 사망자가 1980년부터 89년까지 1,146명이었고 1980년(29명)에 비해 89년(257명)에는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선군 탄광촌의 1980년대는 변성기이자 침몰을 예고하는 여명기이기도 하다.

2. 변성기의 교육환경 구조 변화

1970년대말 많은 학교들이 지어졌으나,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아이들을 보낼 학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1980년대에도 이어졌다. 특히 사북초등학교는 1981년 58개 학급(교사수 61명)에 3,268명의 학생이 다녀 강원도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대형 학교로 성장했다. 교실이 모자라 2부제 수업을 했던 사북국민학교는 결국 1988년 20학급을 새로 설립된 사음국민학교로 보낼 정도였다. 또한 고한 초등학교 역시 50개 학급에 2,636명이 다닐 정도로 큰 규모를 보였다. 1970년대 지은 당시 학교들은 급조되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고 일부 학교는 결국 폐교되기도 하였다. 특히 사북 화절령의 운락국민학교는 학교 바로 밑까지 올라온 채탄막장으로 인해 학교 벽면에 금이가고 붕괴 위험에 놓여 결국 폐교하고 130명의 학생들은 다섯군데 학교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였다. 고한중학교와 사북중학교 역시 각각 1천명이상의 학생들을 20여개의 학급으로 편성하는 등 도내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학교로 불리웠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수가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초등학생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1970년대부터 대규모로 광산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또 초등학생과 전체 인구 증가에 비해 중,고등학생 수의 편차가 심한 것은 그만큼 중고등생의 외지 유학이 많아진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탄광촌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본인은 광부이지만 아이들 교육에는 어느 곳보다 열성적이었던 광부 가족들의 염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다.

1980년 사북항쟁 직후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변



탄광의 공동목욕시설

화가 일어났다. 1980년 10월 사북 동원탄좌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은 주거환경과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특별 지시하면서 마을마다 도서관이 생겼고, 광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전격적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대통령 하사품이라는 이름으로 학용품을 나눠 주었는데 동원탄좌 초등학교 789, 사북초등학교 3,146, 운락초등학교 195개를 보냈다. 1980년 들어 사북 동원탄좌 복지회관을 지으며 8천여만원을 들여 시범 어린이집을 건립하기도 했는데 이곳은 정선군 최초의 유아교육시설이기도 하다.

이처럼 탄광 번성기에 지역사회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아이들일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탄광이 아동들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사

내용이다.

■ 동아일보 81, 11, 17

탄광지역 어린이들은 산, 물 등 보는 것마다 검정색 일색이어서 자연학습의 기회가 거의 없는 데다 학부모의 70~80%가 되는 광부들의 잦은 이동에 따라 한 해에 1천여 명 이상이나 전출입하는 학교도 적지 않아 정서교육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전교생 3천1백여 명인 사북국교의 경우 하루 보통 4, 5명씩, 한 달이면 1백 명 이상이나 전출입하고 있다.

■ 중앙일보 80, 4, 25

탄광촌 어린이들이 탄진공해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은 단조로운 탄광생활에 관한 것뿐이다. 꼬마들은 흙더미를 굴처럼 파놓고 나무 꼬챙이를 꺾어 동발(지주목)을 세운 뒤 모의 갱을 만든다. 고무신에 흙을 담아 손으로 밀어 굴속을 들락거리며 “덜거럭” “덜거럭” 탄차 지나가는 흥내를 낸다.



동원탄좌의 중앙사택. 사복읍의 중심가이다

3. 1980년대 주거환경 변화와 여성의 삶

1980년 사복 노동 항쟁 이후 주거환경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정부에서는 1980년 7월 광부후생복지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83년말 까지 1차 사업 기간 동안 5백42억원을, 84년부터 85년말까지 2차 사업 추진 기간동안 2백억원을 전국 35개 지역 60개 탄광을 대상으로 기본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한 사복에서 새로운 사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아파트도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는 사복의 범바위 사택과 국고보조를 받아 동원탄좌 복지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이 지역 최초의 아파트형 사택으로 이전 사택에 비해 주거환경이 훨씬 좋아졌다.

동원탄좌 복지아파트는 11평형과 13평형 2종으로 온돌방 2개에 마루, 현관, 수세식 화장실, 부엌, 창고 등을 갖추었다. 다른 광산촌의 사택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맨션아파트”라고 할 정도였다. 고한읍에서도 못골 삼척탄좌 사원아파트, 삼척탄좌 중앙아파트, 삼봉아파트가 지어졌고, 일반

건설 회사가 지은 아파트도 생겨 연립형 사택들과 함께 광산노동자들의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사택은 금방 들어온 신참들이 주로 살았고, 아파트는 경력이 오래된 광부들이나 관리자들이 사는 공간으로 구분지어졌고,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려는 것으로 인해 비리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상수도 확장공사가 이루어져 사복, 고한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상수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복 동원탄좌에 광부를 위한 대규모 목욕탕이 건립되었다.

동원탄좌~지장산 사택, 사복 시내~고한까지의 도로 10km도 포장되었다. 그 외에도 동원탄좌 진입교동 다리가 가설되고 사복과 동면, 백전을 잇는 길이 포장되기도 하여 주거환경이 훨씬 개선되었다.

86년 이후에는 광부 숫자가 다소 감소추세에 들면서 주거환경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한 급수를 하던 사택 공동우물에서 각 세대별로 끌어서 물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광부들은 사택 주변에 조그만 텃밭도 일궜다.여기에 심은 상치와 깻잎, 고추, 배추 등을 함께 나누어 먹고, 탄가루를

씻어내는데 효과가 좋다는 삼겹살을 구웠다. 사택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을 한잔하고, 서로의 시름을 달래는 일은 팍팍한 탄광촌의 삶에 많은 위안을 주었던 것이다.

86년도에 들어와서 세 살다가 사택에 들어갔더니 대궐같았어. 한칸짜리에 주인집 눈치보다가 두칸짜리 들어가니 너무 좋았어.... 아저씨 밥해주는 것 보다 물기르는게 먼저고, 수도세도 10만원 넘게 내 봤어요. 공동우물에 여러집이 쓰니까 누진이 붙어서 많이 나오는 거야...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까 엄마들이 돈을 건어서 호수를 사가지고 집집마다 물어줘서 쓰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파트 이사오기전까지 수도세는 여전히 많이 냈지... 아파트에 이사오니까 그게 좋더라고... 아파트도 옆집소리 다 들리고 물도 새는데가 있지만 그래도 낫지

(최○○, 46세, 고한중앙아파트 거주)

광부 아내의 또다른 이름 '선탄부'이다. 많은 금기가 강요되는 탄광에서 여성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선탄부였던 것이다. 선탄부는 갯에서 캔 석탄에서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광부들처럼 갑을병 3교대로 돌아가고, 학자금 지원, 연탄표 지급등 광부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조에 가입도 할 수 있어 탄광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탄광에서 일하는 남편이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다쳐서 장애등급을 받는 광부의 아내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경쟁률이 높았다. 작업조건도 광부들처럼 열악하고, 임금도 저임금이다. 일하는 과정에서 석탄분진이 많이 날려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머리수건을 몇 개씩 써도 집에 와서 가래를 뱉으면 시커먼 연탄가루가 배어 나온다. 일의 강도가 높아서 허리병이나 진폐증에 걸리기도 한다. 3교대로 돌아가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이들과 남편을 돌봐야하고 다른 주부들처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기위해 물을 길어야 한다.

가족의 모든 생계가 선탄부인 여성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은폐되거나, 알려지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징계 정도에 머물러 큰 상처를 주었다. 경제적인 책임과 육아, 가사노동등 이중삼중의 힘든 상황에서도 선탄부들은 계를 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도 한다. 산재를 당한 광부의 아내뿐 아니라 드물게는 일반여성들도 선탄부를 했던 경우도 있다.

애기아빠는 예미에서 농사짓다가 망해서 아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경일탄광에서 근무했고, 삼척탄좌역두에 일하다가 탄광일로 하고 그러다 다치고 장애등급 12급받았는데 이리저리 돈 다 까먹고 힘들게 있다가 돌아가신지 15년 되었어. 티오가 났다길래 어렵게 부탁해서 1980년에 들어가서 쭉 지금까지 삼척탄좌에서 근무했어. 근무기간은 21년인데 그 중간에 증액선탄이 들어서서 8년가 이부서 저부서 다니다가 다시 선탄을 하게 됐어.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아줌마 아저씨 구별없이 할수 있는 일이야. 분탄을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돌은 돌대로 나가고, 탄은 탄대로 나가는 거야. 그래도 슈트 같은데서 막히면 돌맹이가 나가도록 해 주어야해. 그게 힘들어. 선탄하는 것은 분진도 말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 볼 정도였어. 그래서 완전무장을 해. 먼저 마스크 쓰고 눈만 빠르게 내놓고, 장갑도 두겹으로 끼고, 머리에는 고무로 된 거 먼저 쓰고, 모자 쓰고 그 위에 수건을 쓰는 거야. 그래도 나중엔 입에서 탄가루가 나와. 3교대를 하는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다 집에 오면 새벽 2시까지 물나르고, 나도 잠을 자야 되는데 맨날 잠이 모자라는 거야. 그전에도 일이 힘들어서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증액이 생기고 연수가 적으니까 힘든일은 내가 일빠따로 하는 거야. 배수밀에 돌도 치워야 하고 좌철이 너무 무거워서 한 삼씩 뜨면 아저씨들도 무겁다하는데 그땐 정말 힘들었어. 6년전에 돌파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지금은 다리까지 마비가 와. 자석침대도 소영없고, 30만원짜리 허리벨트로 살아. 그래도 삼척탄좌에 다니면서 선탄일 해가지고 아이들 넷이나 키우고 밥먹고 살았어. 내가 바빠서 잘해주지는 못했지만 학교도 시키고 고생한거야 나만 한거도 아니고, 그때는 모두 그랬어...

(이○○, 50세, 1980년에 이사와서 삼척탄좌 문답을때 까지 선탄부로 일함)

그때는 모두가 힘들었어. 우리집은 아저씨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한 3년 놀게 되었는데 월급은 평상시보다 덜 나오지, 아이들은 점점 자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선탄을 하게 되었어. 그런데 그것도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야. 밥도 사주고 한마디로 와이로를 좀 먹어야 되지. 삼척탄좌 직영에는 못들어가고 쫓



항목장에서 갱목을 운반하는 항외부(난장광부)

닥구덩이에서 일했지. 그것도 한 3년 하다보니 안 아픈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두고..

(김○○, 53세, 탄광에서 선탄부로 3년 재직)

4. 1980년대 시장의 변화와 5일장의 쇠퇴

70~1980년대 지역별로 상설시장이 형성되면서 지역별로 이뤄지던 5일장 시장은 쇠퇴하게 된다. 이 시기 정선군 관내에 소재한 정기시장은 1975년 현재 정선 읍내장(2·7), 임계장(5·10), 증산장(4·9, 1995년 5월 19일 재개장), 동면 화암리장(4·9), 북면 여량장(1·6), 북평면 나전장(4·9) 등 모두 6개소에서 개시되었다.

특이하게 고한과 사북은 5일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인근 증산장 또는 태백시의 통리장의 상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때문에 장날이 되면 보다 싼값에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버스와 기차를 타고 장터를 향하던 광부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상설시장의 물가가 다른 도시에 비해 2~3배 이상이던 시절이라 5일장터는 광부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탄광촌인 고한, 사북지역에는 매월 광부들의 월급날(20일경) 전후로 일시적인 가판장이 형성되어 일주일 정도 지속되기도 하였다.

이런 풍습은 1990년대 까지 이어져 사택촌 앞에 가판상인들이 준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도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또한 1980년대 들어 사택마다 구판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로 판매하는 공산품의 가격이 상설시장에 비해 20~30% 싸서 광부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다.

구판장이 설치된 사택에는 탄광회사가 외지 장사꾼들의

출입을 통제했는데 생선이나 야채 등 생물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는 장사꾼들과 부녀자들이 회사 경비와 심심찮게 실갱이를 벌이기도 하였다.

5. 1980년대 탄광으로 몰려든 사람들

1980년대 광산에 취업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유형은 인접한 농촌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의 반농·반광 형태의 임시취업과 농한기에 부업으로 일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이미 가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 촌락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농촌의 특성으로 마을에서 먼저 취업한 이들과의 혈연이나 지연을 통한 취업이 많았다.

두 번째 유형은 도시 불완전 노동자의 조직노동자로의 전환인데 1970년 산업화 현상으로 이농을 경험했거나 도시에서는 건설업등의 불안전 고용, 가두판매, 실업자로 전전하다가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고용의 기회를 찾아 취업

1980년대 진폐환자 사망자 숫자

년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계
숫자	29	20	43	84	70	99	179	153	212	257	1,146

자료: 정책보고서5호(96.1/성희직강원도의원)

하는 유형이다. 1980년대 광산경기가 호황일 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 유형의 사람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자영업자의 노동자로의 전환인데 도시에서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부문 등에 종사, 혹은 경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한후 단기간에 자본을 모으려고 취업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첫째, 둘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았으나 과거 경제적 여유와 문화적 삶을 영유한 관계로 적응도가 약하고 탄광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0년대 탄광 현장의 노사분규에서 앞장섰던 사

람들이 대부분 이 유형이기도 하다. 비판의식이 강하고 문제제기에 익숙한 탓에 분규가 터지면 앞장서서 나서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목회를 만드는 등 조직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 각 탄광마다 생겼던 '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의 주요 멤버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 탄광에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심각한 진폐증 환자의 확산 시기

1982년 노동부 원주지방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월, 평창, 정선지역 내에서 1,510건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 47명이 사망하고 1,51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819명의 진폐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매해 수십명의 진폐 사망환자가 발생한데 비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은 1960~1970년대 탄광에 종사했던 광부들이 10여년간의 진폐 유병기간이 경과하면서 1980년대 들어 집단 발생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도 전면적 폐광 이후 20여년까지 진폐환자수는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업병인 진폐는 합병증이 생기면 병원에 입원해서 사망할 때 까지 산소호흡기와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좀 더 심해지면 중환자실에 있고 가족들은 면회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진폐환자와 그 가족들의 사연들은 탄광촌의 애달픈 회한이기도 하다.

병원에 있다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평소에는 코빠기도 안보이다 환자가 죽으면 가족들이 나타나서 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야. 옛날에 없어졌던 마누라도 나타나고 자식이 사돈의 팔촌까지 서로 싸우고 난리인거야. 어찌다가 여자가 있는 아저씨는 더 힘들지.. 남자라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래도 너무 외로우니까 여자를 찾는 거지. 그러다가 돈 다 뜯기



진폐증은 탄광 근로자들의 고질적인 만성질환이다

고 남는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행복한 거고...

〈박○○, 45세, 사북거주〉

영월에서 농사짓다가 집안도 어렵고, 먹을 게 없어서 시집을 갔어. 나는 17살이고, 신랑은 28살이었어. 막바로 탄광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간 거지. 결혼해서도 30년 가까이 탄광일 하더니, 병이 오더라고. 진폐급수를 7급 받았는데 회사는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어. 내가 발일을 나가고 그러면서 4남매를 키웠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사는 게 다 그런거지 뭐. 애기아빠가 병이 심해져서 병원에 실려왔어. 피를 토하고, 너무 불쌍해. 아이들, 마누라 별

어떡이느라 탄광일 하느라 그 병이 온거지. 괜찮으면 퇴원했다가 3번이나 다시 실려왔어. 이제 다시 집에 갈 수 있을지 몰라.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 같아. 여기 있어 보니까 사람사는게 정말 허무 하더라고. 아저씨가 죽었는데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친척들 이랑 자식들이 와서 돈 때문에 싸우고 난리야. 결국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나는 우리아저씨 죽으면 그냥 이 동네에서 살거야. 친구들도 있고 돈도 반만 타서 자식들 나눠주고 다달이 조금씩 받을거야. 그래도 아저씨 만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도 얼마 나 살 수 있겠어.

(신○○, 66세)

7.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지역사회의 위기

1980년대 중반까지 활황세를 보이던 석탄산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1989년부터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게 되는데, 이 정책은 '비경제탄광의 정비와 경제성있는 탄광의 건전한 육성으로 석탄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무연탄의 과잉공급과 채탄심부화로 인한 비용증가, 수입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10만톤 미만의 영세탄광 난립 등이 위기의 원인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정부가 추진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전국 347개 탄광중에 307개가 문을 닫았고, 정선에서만 시행 첫해인 1989년에 18개의 탄광이 문을 닫는데 이어 93년까지 19개의 탄광이 추가로 폐광하여 단 2개의 탄광만 남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단기간내에 정부의 의도대로 이뤄졌으나 그 후유증은 엄청났다. 1만명 가까운 광부들이 일하던 정선지역에는 불과 3~4년만에 광부 숫자가 1/3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은 곧 대규모 실직과 지역사회의 붕괴라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 생존권의 위기로 이어졌고 1990년대 초반 터져나온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쟁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합리화 정책으로 폐광된 광부들은 폐광대책비로 퇴직금과 생활안정금, 이주비용 등을 받았으

1980년대말 정선관내에서 폐광된 탄광업체 현황

연번	광업소명	대표자	폐광일자	소재지
1	묵산	김지현	890516	정선군 남면
2	(정동)예광	김동혁	890603	정선군 고한읍
3	(세원)동진	김영길	890609	정선군 고한읍
4	(정선)신태일	신태진	890613	정선군 정선읍
5	(세원)동성	민병욱	890614	정선군 고한읍
6	(동원탄좌)영일	황재동	890628	정선군 고한읍
7	(경일)경산	이교충	890705	정선군 고한읍
8	(우전)신대왕	손분례	890710	정선군 북면
9	(세원)동산	이교충	890714	정선군 고한읍
10	자미원	강영기	890720	정선군 남면
11	(동원탄좌)우신	김중소	890825	정선군 고한읍
12	(동원탄좌)성동	신동철	890826	정선군 고한읍
13	(동원탄좌)삼왕	김유봉	890905	정선군 사북읍
14	(우전)대평	김정태	890626	정선군 북면
15	(동원탄좌)경진	장필경	891019	정선군 사북읍
16	(동원탄좌)우성	고원희	891031	정선군 사북읍
17	(동원탄좌)석흥	주명석	891102	정선군 사북읍
18	(동원탄좌)동보	신동재	891122	정선군 사북읍

*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고 자료(02.9)

나 그 금액은 대략 4개월분의 평균임금, 1천만원 내외로 실직 대책으로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직 광부들은 도시빈민으로 재편입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많은 실직광부들이 1980년대말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던 부산과 서울, 인천, 안산등지로 이주하여 지하철 갱도 굴착작업에 종사하였다. 특히 같은 탄광에 다니던 광부들이 동료들을 연결하여 지하철 한 공구에 동원탄좌 또는 삼척탄좌 하청 출신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생겼다.

특히 안산과 인천 등에는 동원탄좌 실직광부들로 구성된 친목계가 생기는 등 집단 이주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썰물 빠지듯 떠난 광부들의 빈 자리를 메꿔줄 대체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의 상권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 들어 생존권 투쟁이 지역상인 주도로 이뤄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된 것이다.

제 5 절 1980년 사북노동항쟁의 배경, 진행 및 결말

1. 1980년 사북노동항쟁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의미

1980년 사북 노동항쟁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탄광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1979년 10.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사건 이후, '1980년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꿈틀거리던 상황에서 사북항쟁이 발생한 것이다. 1980년 4월은 기나긴 유신 독재권력이 끝난 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요구와 신군부로 대표되는 군사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집권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 한편, 학생들과 시민운동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 표출하던 때였다. 당시 계엄령을 통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며 노동현장의 민주적 요구들을 누르고 있던 상황에서, 전혀 예상밖으로 강원도 산골짜기 탄광촌 사북읍에서 3일동안 공권력이 무력화된 대형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1980년 사북 동원탄좌는 도급제를 악용한 임금착취, 열악한 주거 복지환경, 매년 백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막장 노동조건, 암행독찰대로 대표되는 철저한 감시통제 등 탄광 노동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다.

또한 광산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회사편을 드는 어용노조이면서 한발 더 나아가 대의원들을 매수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간접선거를 무리하게 강행시키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이원갑, 신경씨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가 노조 직선제, 임금인상 관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경찰이 광부들을

차로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쌓였던 광부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1980년 4월21일부터 3일동안 사북읍 전체를 광부들이 장악하는 무정부 상태로 번지게 되었다. 3일간의 짧은 사건이었음에도 이 사건이 던진 파장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즉 1980년 사북항쟁을 계기로 마산, 창원, 울산, 인천 등 전국 각지의 노동현장에서 노조 민주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내건 파업투쟁이 줄을 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1980년 4월 사북 노동항쟁은 계엄하에 눌러있던 노동현장의 외침이 터진 극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신군부는 언론을 통해 1980년 사북항쟁을 '무정부 상태' '광부들의 폭력난동' '무법천지' 등으로 선전하고 아울러 경찰을 총동원하여 당시 사북항쟁 참여자 10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여 폭력과 갖은 고문으로 가하였다.

당시 신군부는 이 사건을 '사회적 혼란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전하여 신군부 집권의 정당성 홍보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하여 본격적인 집권시나리오를 시작했다. 이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1980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광부들의 외침으로 터져 나온 사북항쟁을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 선전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결국 1980년 사북항쟁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이후 20여년동안 말할 수 없는 침묵을 강요했던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2. 1980년 사북사건의 전개과정

(최○○ 50세, 사북사건때 29세)

4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광부와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끝난 1980년 사북노동자 대투쟁은 이후 기만적이기는 하지만 전두환정권이 탄광촌과 광부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1980년이후 탄광촌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북노동항쟁에 대한 증언과 진행 일지는 다음과 같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 그래도 아줌마들이 남자들 숨겨주기도 하고, 밤마다 매일 색출을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누가 잡혀갔다더라 하고... 그래도 아줌마들이 용감하긴 했어. 그래 당하고도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가보고, 약도 지어주고, 남편이 끌려간 집은 무서워서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몰래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랬다니까. 말은 안해도 다 마음으로 아는 거지. 우리가 무에 그리 잘못했다고. 인간취급도 안하고. 나는 그래도 사람들 믿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더라고.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지서에 붙잡혀 가 있었을 때 아줌마들이 거의20명이 붙잡혀 왔었어요. 저희감방이 일감방 이감방있었는데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은 목욕탕에 있었는데, 순경하나가 정순경이라고 여자들한테 입에 못담을 욕을 하고, 그때 당시 우리가 잡혀 가 있으면서도 개돼지 취급을 받았어. 아마 그 방에 데리고 가서 매달아 놓고 사람 두들겨 패고, 옷 벗겨놓고 물호수로 때리고 돼지처럼 손뭉고 발뭉고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물 먹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오니까 얼굴이 멍멍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피치못하고 동탄에 다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여자들보고 잠자리, 그 부부잠자리 자는 얘기까지 하면서, 정신병이야. 그새끼 갈아먹고 싶어. 성추행에 대해 연구하나봐. 니 신랑하고 하고싶지 않으나, 내가 대신해 주려니, 그런소리 할 때는 수감만 안찮으면 죽이고 싶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 우리가 맞은 거야 지나면 좀 나아지지만 그런건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거니까 두고두고 생각날 거 아니야

(박○○, 53세, 2001년 동탄 퇴직)



1980년 4월의 사북노동항쟁

이 아줌마들이 잡혀갔다가 와가지고는 병이 들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고 그런 얘길 남편한테 할 수도 없잖아. 그러가지고 이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었어.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운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숨기기 시작하더라구요.

(손○○ 수녀님, 당시 사북성당에 있었으며 김순희 린치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돌아온 아줌마들을 주로 방문하여 위로함)

나는 글도 모르는데, 내가 동네일을 잘 본다고 보내 줬거든. 가가지고 교육받고 열심히 했어. 교육받은대로 그대로 행거야. 안되는 일 좋게만 들고, 나쁜 사람들 착하게 살고, 협동해서 잘 살고, 헌마을을 새마을로 만들고, 새시대로 만들고 그랬지 뭐. 멸공 계몽전담요원은 간첩잡고 하는 거야. 수상한 사람보면 신고해서. 시계탔어. 저기 원주에 있는 사람 잡았어. 그렇게 뒷받침을 잘해 줬는데. 사태가 나니까 소용이 없었어. 남편이 그래 그까짓거 해 봤자 뭐하는 거냐고, 두드려 맞기만 하는 거 뭐하는 거냐고. 끌려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기슴을 위로 무지막지하게 잡아 올리는 거야. 그러면 기절할 것 같아. 안당해본 사람은 정말 몰라. 소름이 돋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 내놔다가 다시 데리고 와선 발길로 막차는 거야. 빨갱이 같은년아 하면서 또 때리고, 말로 할 수 없어.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 너무 무서웠어.

(김○○, 70세, 당시 부인회장, 사북거주)

전화 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일로 우리아저씨 안 잊고 있는데 가정불화 일어나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 당시 김순이 린치한 아줌마, 안산거주)

애기아빠가 버스 운전 했었는데, 사람들이 제때 안태워준다고 유리창을 다 깨고, 백밀러도 다 깨고, 난리도 아니었어. 처음엔 노조선거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다들 눈이 벌개가지고 거기다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잘못 말했다가는 달려들어가지고 때리고 욕하고, 너무 무서웠어.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몽둥이 들고 큰소리치면서 나오라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나가야 되고, 나와라 그러면 얘기를 해업고 같이 앉아 가지고 손을 흔들고 그랬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난리가 나면 이렇겠구나 했어. 애기아빠가 보니까 사람들

속에 경찰들이 작업복을 해 입고 군데군데 있더라. 나보고 조심하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노조지부장 아줌마를 그랬다는 소리는 소식만 들었고, 나중에 붙잡혀 간 사람들은 정말 많이 당했더라고. 특히 아줌마들은 나와서 말을 못하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 할 정도로 당했나보더라고. 어떤 아줌마는 정신병원에도 갔다고 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고...

(박○○, 49세, 정선거주)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 그래도 아줌마들이 남자들 숨겨주기도 하고, 밤마다 매일 색출을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누가 잡혀갔다더라 하고... 그래도 아줌마들이 용감하긴 했어. 그래 당하고도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가보고, 약도 지어주고, 남편이 끌려간 집은 무서워서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몰래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랬다니까. 말은 안해도 다 마음으로 아는 거지. 우리가 무에 그리 잘못했다고, 인간취급도 안하고, 나는 그래도 사람들 믿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더라고.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들고...

(최○○, 50세, 사북사건때 29세)

[사북노동항쟁 일지]

- 1980년 4월15일 21시 이원갑, 신 경씨 등 25명 전국 광노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
- 4월16일 9시경 항의 농성단 25명 광산노조 위원장실 점거, 임금인상 문제는 이해되었으나 지부장 선거문제는 재선거 요구하며 계속 농성. 18시경 광노 사무국장의 설득으로 인근 여관에 이동
- 4월17일 9시30분경 항의 농성단 깨자 광노 부위원장실 점거, 농성. 다음날인 4월 18일 1시 사북광업소 현장에서 대외하기로 합의하고 사북으로 돌아옴
- 4월18일 14시 광부 50여명과 지부장 대외 시작, 17시 대외 결렬, 이제기 지부장 사북 지서에 신변 보호 요청. 사북지서장 '계엄령하 불법집회 위법이므로 해산' 중응. 광부들이 항의하고 해산에 불응하자 대의원 신 경씨를 지서로 연행. 100여명의 광부들 가세하여 사북 지서로 이동. 점차 300명의 광부들이 모여들자 이제기 지부장이 '4월21일 14시에 대의원 대외를 개최' 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사북 지서장이 집회 허가를 약속. 이런 와중에 이제기 지부장 사라지자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고 21시경 해산.
- 4월19일 이제기 지부장 명의로 집회허가 제출. 정선경찰서에서 계엄분소에 전달하였으나 계엄분소에서 불응결정. 집회 불허 내용을 광업소 출입문에 공고하자 노조에 찾아가 광부들 항의

- 4월20일 각 사택마다 집회 불허라는 계엄사령부 명의로 벽보 게시.
- 4월21일 14시경 집회불허에도 불구하고 광부 70명 노조 지부 사무실에서 농성 시작. 2층에 경찰 50여명 대기하다가 농성자 해산을 위해 사무실 포위. 경찰 1명이 광부 복장으로 농성장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차량으로 도망가 탈출 시도. 이 와중에 앞을 가로막는 4명의 광부를 차로 질주하여 부상을 입힘. 17시경 갑방퇴근자가 몰리면서 사복지서장을 붙잡고 사복 시내로 진출. 지서 기물파괴 후 점거 농성 시작. 22시경 동원탄좌 객실에서 장성 경찰서장및 광업소장이 모여 회의 하던 중 시위대 100여명 습격. 21시경 시위인원 1,000여명으로 늘어남. 회사간부와 노조간부 가택 집중 파괴.
- 4월22일 새벽 3시까지 광업소, 객실, 간부사택, 합숙소, 노조지부 등이 성난 광부들에 의해 파괴. 4시경 방승기계를 점거한 광부들이 집결 호소, 9시경이 되자 2,000여명으로 시위대 증가. 9시30분경 백여명의 부녀자와 시위대가 이계기 지부장집으로 몰려가 파괴. 뒷집에 숨어있던 지부장 부인을 잡아 린지. 강원도경에서 200여명의 경찰이 증무장하여 사복읍에 도착. 10시 30분경 경찰에 밀린 광부 3,000여명이 안경다리 안으로 후퇴하였다가 5,00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대치상황. 10시 40분경 경찰이 공포탄과 최류탄 발사하며 진압작전 진행. 시위대가 돌과 공돌을 안경다리 밑으로 내던지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진압대열 붕괴되면서 도주. 경찰 부상자 다수 발생. 광부들이 무장하여 경찰관 색출, 폭행. 12시경 사복읍내 전학교 오전 수업 실시하고 교사들이 인솔하여 사택으로 학생들 귀가. 14시경 경찰 사복읍에서 완전 철수. 순경 이덕수 중태. 70여명 중상. 광부들 38번국도와 철도 점거. 광부 시위대 경찰서와 예비군 중대 무기고, 화약고 점거. 16시경 이계기 지부장과 이원갑. 신경등과 협상. 19시경 강원도지사 김성배등 대책위원회와 광부 대표 1차 협상. 8개의 협상안 마련
- 4월23일 5시 이덕수 순경 사망. 7시 8개 합의안 광부들의 반대로 합의 실패. 14시 헬기로 협상안 전달 공중살포. 18시30분 이원갑등 90여명 2차협상을 읍사무소에서 개시. 철야 협상
- 4월24일 7시30분경 11개항 합의. 노조지부장 부인 석방. 10시경 부녀자와 농성자를 해산, 바리케이트 철거. 12시 무기고와 화약고 경찰에 인계
- 4월25일 광부와 회사, 읍사무소등이 참여한 수습대책위원회 구성
- 4월27일 군검경 합동수사반 설치되어 주동자, 배후조종자, 폭행가담자 138명 명단 작성
- 4월28일 수습대책위원 명의로 호소문 제작 배포
- 4월29일 동원탄좌 정상조업. 출근율 89%
- 5월7일 계엄사 70여명 불시 연행. 주동자 7명, 폭력 13명, 부녀자 5명, 이계기 지부장 구속

- 6월3일 계엄사 동원탄좌 이계배 사장, 광노위원장, 광노조직국지장, 조직부장 등 추가 구속
- 8월4일 구속자들 28명, 1군사령부 계엄보통군법외의에 외부되어 징역 5년~1년6월의 선고를 받음

3. 민주화 운동으로의 자리매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어느정도 진전된 2000년대가 되면서 사북항쟁의 주도자이자 피해자인 당시 광부들은 그동안 막혀있던 입을 열기 시작한다. 이원갑, 신경, 윤병천씨등 40여명의 당시 광부들이 모여 '사북항쟁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는 폭도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학을 찾다니며 20년전의 사건을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정선지역발전연구소가 1980년 4월 사북'이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사북항쟁의 진실을 파헤치고, 동시에 이들의 삶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먼지, 사복을 묻다'(이미영 다큐감독)가 만들어지고 영화제에 상영되면서 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매년 사북항쟁 기념식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관계기관에 진정서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이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진 결과 2005년 9월 심의위원회에서는 1980년 사북항쟁을 주도했던 이원갑, 신 경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아울러 추가로 명예회복을 신청한 당시 20여명의 참여자들에 대한 심사에도 본격 착수하였다. 한편 국가에서는 1980년 사북항쟁을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대 사건의 하나로 선정하여 국가기록원이 자료 복원에 나서는 등 늦었지만 이제야 이 사건의 재평가와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제 6 절 1990년대 석탄산업 사양화와 지역공동화 현상

1. 1990년대 상황 개괄

1980년대말부터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1990년 초반부터 탄광촌을 휩쓸었다. 정선군 탄광촌은 그 직격탄을 맞았는데 예를들면 89년 18개의 영세 광업소가 폐광한데 이어 1990년대 들어 19개의 탄광이 연이어 폐광하는 등 정선지역의 탄광 대부분이 사라지는 상황에 처하였다.

또한 합리화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삼척탄좌와 동원탄좌 등 정선군 소재 대형 탄광들에 대해 장기육성 가행탄

동탄이 감산지원금을 받고 해고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에 맞서 1990년대 말 탄광근로자들이 대규모 쉼기대회를 벌이고 그 결과 폐광대책비를 대폭 인상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국 탄광의 폐광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오히려 폐광을 앞당기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는 탄광의 급속한 쇠락기로 탄광관련 인구 비중도 대폭 감소되어 88년말 정선군 등 탄광지역 평균 53%에 달했던 인구비율이 98년에는 7.8%에 불과할 정도로 쇠

도내 6개 대형탄광의 경쟁력 비교

회사	사북고한지역		태백지역		도계지역	
	동원탄좌	삼척탄좌	장성석공	한보탄광	도계석공	경동탄광
94말기준 년간생산량	108만7천톤	101만6천톤	126만7천톤	50만톤	67만5천톤	102만톤
95.1월기준 근로자수	2,391명	1,274명	3,268명	949명	1,650명	1,856명
채탄갱구 심부화	+550~ +200M	+500~ +450M	+400~ -228M	+443M	~-259M	+350~ +100M
94년기준 평균탄질	4,456cal	4,378cal	4,870cal	4,656cal	4,891cal	4,941cal
수갱시설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93.6월기준 톤당생산원가	51,700원	53,800원	70,800원	57,600원	87,100원	72,700원
가체매장량	3,180만톤	5,000만톤	5,909만톤	2,290만톤	6,681만톤	4,472만톤
1천톤당소요인원	2.2명	1.3명	2.5명	1.9명	2.4명	1.8명
95년도 감산계획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995.1월 장기육성탄광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 제출된 자료(공추위 내부문건)

광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몇 년 못가 이들 탄광을 한계탄광(경제성 낮은 고원가 탄광)으로 지정하여 자율폐광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자율 폐광에 앞서 1990년대 초반부터 감산지원정책을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삼척탄좌와

퇴하였던 것이다.

한편 대규모 폐광과 인구 감소로 공동화 위기를 맞은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주민운동조직이 만들어지고, 생존권 투쟁을 벌인 것도 1990년대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특히 95년 3.3 주민 대투쟁으로 정부로부터 특별법 제정등을 약속 받아 입법화 하고 이를 근거로 강원랜드가 설립됨으로써 새로운 도시변화가 시작된 시기인 것이다. 이처럼 1990년대

합리화 사업 이후 사북, 고한지역의 인구 변화

	1988	1990	1992	1994
가구수	12,565	9,833	8,281	6,599
인구수	52,281	37,228	30,240	22,730

는 정선군 탄광촌이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제길, 또다른 도약이 시작된 시기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2. 석탄산업 합리화의 본격적인 전개

1987년 4월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은 주요 목적이 석탄산업의 합리적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름 그대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태어난 기구인 셈이다. 합리화 사업단은 88.12월 석탄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비경제 탄광의 폐광지원을 위한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주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공포하자 이에 근거하여 89년부터

본격적인 폐광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 363개의 탄광 중 334개를 정리한다는 방침을 가졌다. 대부분의 영세 탄광이 시행 첫 해인 1989년에 문을 닫았고 1990년이 되자 어느정도 규모 있는 중형탄광들도 폐광에 뛰어들었다. 정선군 관내에서도 1989년 18개 탄광에 이어, 1990년부터 93년까지 19개 업체가 추가로 폐광을 하였다. 이로인해 고한읍과 사북읍의 인구는 폐광 직전이던 1988년(52,281명)에 비해 1994년(22,730명) 무려 3만명이 줄어들었다.

3. 석탄 감산정책의 실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석탄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계속되자 정부는 1994년부터 석탄감산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감산정책을 시행하면서 탄광업체로부터의 반발을 막기 위해 가행탄광에 고정비 상승 부담을 이유로 감산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주)동원탄는 35만톤을 감산하고 55억원, (주)삼척탄좌는 18만톤 감산에 24억원을 지급받았다. 95년에 들어서도 (주)동원탄좌는 18만4천톤 감산에 58억9천만원, 삼척탄좌는 35만3천톤 감산에 119억8천만원을 지급받았다.

감산정책의 결과 동원탄좌와 삼척탄좌의 하청은 대부분 문을 닫았으며, 여기에 종사한 하청 광부들이 줄지에 실직자가 되었다. 더구나 동원탄좌와 삼척탄좌의 생산설비가 최소 100만톤 이상 생산규모로 투자되어 있었기에, 100만톤 이하의 생산이 지속되면 기업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는 결국 동원탄좌와 삼척탄좌를 자연 폐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큰 반발을 불러왔다.

1994년 감산으로 실직된 삼척탄좌 하청 중앙개발 노동자들이 막장농성을 벌이고 곳곳마다 집단 항의와 시위가 발생했고,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를 상대로한 민사소송들이 봇물 터지듯 발생했다.

이 감산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하청 노동자의 숫자는

세원탄광의 폐광탄광 인정서 요청 공문

주 권 회 사 세 원 탄 광

세원탄 제 44 호 (591 - 2681) 1991. 2. 18

주 신 정 선 군 주

제 목 '91년도 폐광신청 대상탄광 인정서 발급요청

1. 지인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의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드립니다.

2. 본 (주) 세원탄광은 석탄산업법 제 39조의 2 제 1항 및 동지부 고시 제 91 - 1호의 기준에 의해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으로 '91년도 폐광 예비 신청을 하 있는 바 양해 제 184호에 의하여 고시(인정서)에 해당하는 조안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당 탄광은 광장제지 및 경인여객 안화로 계속 작업을 하므로, 인정서 발급요청과 관련한 증명자료를 첨부함같이 제출 하오니 검토하시어 '91년도 폐광 신청대상 탄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과민에 선처를 바랍니다.

첨 부 : 인정서 발급요청과 관련한 증명자료 각 1 부

선 결 과정 141/결 제자

접수일시 1991. 2. 18 67

처리과 지역경제과

대표이사 이강

인

1991. 2. 18

4인기

1990년대 정선관내에서 폐광된 탄광업체 현황

연번	광업소명	대표자	폐광일자	소재지
1	(삼척탄좌)인동	김성태	900222	정선군 고한읍
2	(세원)동덕	권숙재	900625	정선군 고한읍
3	(동원탄좌)동북	장필경	900627	정선군 사북읍
4	(동원탄좌)태흥	김상봉	900728	정선군 사북읍
5	(경일)현대제일	신창립	900730	정선군 고한읍
6	경일	김일하	900826	정선군 고한읍
7	(동성)진덕	김익환	901027	정선군 북면
8	(자미원)두정	김형정	910601	정선군 남면
9	세원	이상현	910906	정선군 고한읍
10	(세원)거진	권위특	910906	정선군 고한읍
11	(동원탄좌)유성	김봉빈	911118	정선군 고한읍
12	(동성)신일	손본례	920229	정선군 북면
13	(동원탄좌)삼성	김태오	920310	정선군 고한읍
14	나전	김태오	920625	정선군 북평면
15	옥갑	장필경	920711	정선군 북면
16	(삼척탄좌)삼덕	장세현	920724	정선군 고한읍
17	동성탄좌	박달수	930514	정선군 북면
18	정동	남상하	930730	정선군 고한읍
19	석공-함백	김중호	931106	정선군 신동읍

1,100명에 달했다. 감산정책은 정부가 향후에도 폐광일변도의 정책을 펼 것이라는 잣대로 인식되었고, 결국 주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다. 감산 정책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게된 탄광회사가 95년 병반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런 반발은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났으며 결국 95년초 생존권을 위한 대정부 투쟁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정부의 감산정책에 대해 지역 사회단체들은 도내 탄광을 비교하며 삼척탄좌와 동탄을 장기육성 탄광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정부에 보내고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을 모았지만 역부족 이었던 것이다. 아래 자료는 당시 삼척탄좌나 동원탄좌가 다른 탄광에 비해 효율적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 막장 심부화 및 수갱시설 보유등으로 생산원가가 우위에 있으므로 장기육성탄광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토론회 자료이다.

4. 석탄산업 사양화와 교육현황

석탄산업의 사양화는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는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컸다. 한때 인구 10만 이상

을 유지하던 지역이 이제는 인구 5만을 하회하는 소도시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여파는 교육현장에도 그대로 전파되었는데 이런 영향은 주요 탄전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탄전 지역(사북,고한,신동) 학생 수 변화 추이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초등학교	14,877	12,126	9,023	2,713	1,298	923
중학교	4,335	5,582	3,976	2,169	842	434
고등학교	1,599	2,481	2,376	1,580	1,046	509

1980년 ~ 2005년 정선군 관내 학생 수 변화 추이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초등학교	26,477	20,893	14,936	5,687	3,291	2,615
중학교	8,313	10,027	7,277	4,397	2,076	1,220
고등학교	2,687	4,265	4,177	2,946	2,248	1,235
계	37,477	35,185	26,390	13,030	7,615	5,070

학생 수의 급격한 하락을 보인 시기는 석탄산업이 사양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이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한 중소 탄광의 대규모 폐광으로 인해 학생수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 기준으로 정선군 전체 학생수(22,213)는 10년 동안 17,000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주요 탄광지역인 사북읍과 고한읍, 신동읍의 학생수는 같은 기간 12,000명 가까이 줄어들어 집단적인 이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가를 실감케 해준다. 급감한 학생 수는 교육 현장 여러 곳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년도별 초등학교 폐교현황

	1991	1994	1995	1996	1997	1998
학교명	운락	동원탄좌	직전	박심 함백- 매화	함백- 방제	만항 대성

특히 중, 고교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우선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교원의 배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치교사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교과지도가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부진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에게 교육여건이 좋은 타 지역 유학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으며,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광산이 집중되어 있던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폐광과 함께 찾아온 실직은 자연히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는 부족한 학업을 보충해주던 사교육 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광산지역(고한, 사북, 남면, 신동)에서는 학원이 한곳도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학교의 폐교가 이루어진 시기도 이때에 집중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가 시작된 89년부터 통합되거나 폐교가 된 학교는 무려 37개교이며, 이중 초등학교가 35개교이다. 이는 대부분 중소 탄광이 위치한 지역에 분교로 운영되던 초등학교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탓이다.



2001년 폐광된 정선군 고한읍 (주)삼탄 갱구에서 흘러드는 갱내수로 하천(지장천)이 붉게 물들었다. 갱내수에 함유된 철과 아연 등의 산화작용에 의해 비롯되는 이 같은 현상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폐갱내수의 대표적인 오염사례로 꼽힌다.

5. 폐광가의 대량 발생과 광해 복구사업

1970~1980년대 국가 에너지원을 도맡았던 탄광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새로운 고원 관광휴양지로 변신을 시작한 1990년대말, 정선군 탄광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빈집 철거와 광해 복구 문제였다.

정선군내에서 폐광으로 인해 발생한 산림 훼손은 모두 60만평에 달했다. 폐광 직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광해복구 사업을 시행했으나, 사업수준이 배수로와 산사태 방지용 자갈층만 설치하고 최소한의 복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나무를 심고 풀씨를 뿌려도 폐석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형편이었다.

특히 예산문제로 인한 형식적인 복구와 재복구로 매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정선군 고한읍 박심리는 스몰 카지노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으로 한때 인동탄광을 비롯한 6개 탄광이 밀집해 있던 곳으로 7만여평의 폐석부지가 있었다. 1990년대 초반 10억여원을 들여 광해복구를 했으나 몇 년간 장마기를 거치면서 다시 폐석더미가 그대로 노출되어 결국 강원랜드가 조경 복구사업을 다시 벌인 뒤에야 어느정도 복구가 완료되었다.

반면 부실 복구로 말썽을 빚었던 고한읍 두문동 싸리재의 경우 1998년 본격 복구에 나서 5만여평에 20억원을 들인 대규모 복구사업을 벌여 원상에 가까운 복구를 마치기도 하였다. 매년 지역주민과 정선군에서는 산업자원부에 30~40억원의 복구예산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1990년대 말까지도 부분 복구만 이뤄진 채 방치되고 있다. 통상 평당 5만원대의 복구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광해 복구사업은 고원휴양단지로 변모하는 정선지역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

1990년대말 대규모로 발생한 정선 폐광지역의 빈집들도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었다. 인구가 대량 유출된 1990년대 초반부터 빈주택들과 주택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97년과 98년에 통계로 잡힌 빈집만 하더라도 정선군 관내에 약

1,800여동으로 나타났다.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빈집 철거는 5년동안 불과 432채만을 철거하였을 뿐 1990년대 말까지 대량의 빈집들이 방치된 채 있었다.

이에따라 1990년대 말까지 정선군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주택보급율이 120%~140%에 달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런 빈집들은 화재 발생과 청소년 비행문제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기피로 새로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었고, 특히 카지노 사업이 확정된 1990년대말에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투기대상이 되어 철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사북읍 골말 지역과 소잡골 지역, 고한읍 물한리 지역 등 개발 대상지 및 철거예정 지역에는 입주가가 대폭 늘어나고 주택매매가 늘어나는 등 보상금을 노린 투기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고한 사북지역의 경우 폐가옥과 주거불능 가옥의 70~80%가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 이후 개발의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정선군은 1997년4월부터 1년간 고한 사북 남면 등 폐광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으나 해제된 1999년에 다시 평당 땅값이 단기간에 3배이상 오르는 등 투기 현상에 시달렸다.

제 7 절 1995년(3.3) 및 1999년(9.9)의 지역경제 살리기 및 주민생존권 투쟁

1. 1995년 3.3 지역경제살리기 및 주민생존권 확보 운동

가. 지역주민운동의 구심점 형성

1980년대 정선군 탄광지역은 탄광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민주노조 쟁취를 위한 시점이다. 반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주민운동은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 확보운동으로 그 토대가 바뀌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의 물적인 토대가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지역 연고성이 강한 소상공인 계층이 조직화되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갔던 것이다. 이런 토대 변화를 표현한 말이 1990년대에 등장한 ‘지역살리기 운동’인 것이다.

이 운동의 핵심으로 ‘고한 사북, 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주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92년에 만들어진 공추위와 지역 번영회들은 이후 특별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 등 지역살리기 운동의 대안을 성취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주요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1995년 3.3 주민생존권 확보운동의 배경

폐광지역인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남면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3.3 정부와의 합의 문서이다. 이 합의서에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5개의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1995년 3.3 성과는 일회적인 결과가 아니라 1992년부터 이뤄진 지속적인 지역살리기 운동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1990년대 초반까지 추진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대규모 폐광이 계속되면서 지역이 공동화되고 이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결과라는 점이다. 1992년 월사북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지역살리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1993년 대규모 쫓기대회가 열렸다.

또 같은 해 서울 종로 명동성당 앞에서 ‘탄광촌 바로알기 범국민 캠페인’이 열렸고, 1994년까지 매해 지역발전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다. 1995년 3.3 주민 생존권 확보운동의 전개과정

1995년의 주민생존권 확보운동은 공추위가 본격적인 활동은 선언한 1995년 2월부터 본격화된다. 공추위는 이 투쟁을 총괄하는 지도부를 새롭게 구축하였고, 지역주민들은 십시일반 기금을 모금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1995년 2월27일 벌어진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주민 쫓기대회’에는 5천여명의 지역민이 참가한 역사상 최대규모의 단일 집회이었다.

이에 중앙정부가 연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3월5일 동원탄좌와 삼척탄좌의 탄광광부들이 총파업 투쟁을 통해 동참할 것을 결의하면서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정부가 박재운 통상산업부 장관을 앞세워 타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3월1일 1차 협의에서 대략의 골격을 잡았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1995년초의 폐광지역 경제살리기 및 주민생존권 투쟁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정부에서는 박운서 당시 통상부 차관을 현지인 사북읍사무소 내려보내 합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날 극적으로 5개항을 담은 합의사항을 발표함으로써 1995년 3.3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날 합의된 사항 중 특별법 제정 약속은 이후 정선군

고한 사북 남면 지역뿐 아니라 폐광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근거가 되었다. 이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폐광지역 연대회의가 만들어 지고, 지역별로 특별법 제정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199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었다.



라. 1995년 3.3 주민생존권 확보운동의 역사적 의미

1995년 3.3 운동을 비롯한 1990년대 주민운동은 지역발전의 역사적 계기가 된 특별법을 마련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행정기관과 전문 연구기관들까지 대책없이 포기하다시피 한 절망적인 상황을 그야말로 지역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성과의 근본적인 힘은 지역주민들의 헌신적인 단결과 희생, 지역을 살리려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계층들과 탄광 근로자들이 함께 써낸 값진 성과로서 지역 주민 전체가 주인공이다.

이를 계기로 강원랜드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3.3 주민 생존권 확보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거의 절대적이기까지 하다. 다만 95년 3.3 합의 사항 중 주요부분 중 하나였던 탄광에 대한 지원약속이 지속되지 못하고,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 위주의 개발로 편중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 밖에 없다.

카지노 사업이라는 블랙홀에 지역 전체가 급속도로 편입되면서 난개발과 개인 및 계층간의 갈등, 탄광근로자와 지역 저소득계층의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 5개항 합의사항 ❑

1. 고한사북 지역을 포함한 주요 탄광지역을 “지역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94년 1월 7일 국회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 4722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 제 3장 광역개발사업의 촉진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개발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조기 지정한다(강원도에서 3월말까지 지정신청).
2. 주요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통상산업부에 “폐광지역 개발촉진지원단”을 즉시 설치하여 강원도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한다.
3.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6개년 계획(92-97)을 보완, 남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자질없이 추진한다.
4. 앞으로 석탄감산은 불가피하나 그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면서 적정 생산규모는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며 고한사북의 경우 석탄생

산량이 증장기적(향후 5년간)으로 연간 170만 톤 수준으로 유지토록 한다. 다만 대개산업유지로 고용이 창출될 때는 그에 상응하여 감산한다.

5. 주요탄광지역에 대개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비의 50%수준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고한의 경우 현 석탄생산규모(200만 톤)와 향후 생산규모(170만 톤)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24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정부는 결코 탄광지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최선을 다하여 이 지역을 진흥시켜 나갈 것입니다. 탄광지역 주민, 근로자들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정부지원이 소비성 자금에 지우진 점을 감안하여 동 자금이 생산적 자금으로 활용되어 이 지역 경제가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하여 활성화 되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1999년 9.9 광산노동자 생존권 투쟁

가. 9.9 생존 확보운동의 배경과 요구사항

1999년 9월9일은 탄광노동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날 전국 광산노조연맹은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복지회 광장에서 ‘정부의 무연탄 화력발전소 매각 반대 및 석탄산업 말살 정책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원탄좌탄좌와 삼척탄좌 근로자를 비롯해서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위원장 부인 12명이 삭발을 하는 등 눈물바다를 이룬 이날 대회는 정부의 석탄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결의대회였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민간 매각이 결국 값싼 중국 수입탄을 쓰게 됨으로써 국내 석탄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실직되는 광부들에게 36개월분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정부가 산하기관 구조조정 직원에게 수천만에서 수억원의 명퇴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실직 광부들은 형편없는 처우를 받는 것이라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나. 9.9 생존권 확보운동의 전개과정과 결과

9.9 결의대회에 이어 9월13일부터 각 지역 노조위원장 12명이 갯내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벌이고 9월17일 부터는 지역별 삭발투쟁이 벌어졌다. 이런 운동의 결과 정부에서는 폐광대책비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대책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광업자 폐광대책비를 톤당 10,000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광부들의 대책비 역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9개월까지 지원하는 등 이전에 비해 훨씬 개선된 안을 제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1년 이후 폐광된 탄광 근로자들은 기존 보다 7배 이상 높은 대책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 결과가 폐광을 앞당기는 작용을 하여 삼척탄좌와 동탄의 폐광시 찬성율이 90%이상 나올 정도였다.

❏ 폐광대책비 현실화 내용 ❏

(2000.12.29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 ①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비용연간 석탄생산량*10,000원/톤(30만톤 이상은 8,000원/톤)
- ② 근로자 : 퇴직금(75%), 임금(2개월분),실직위로금(1개월분),전업준비금(근속기간 3월~7년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특별위로금(근속기간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 단 13년 이상 근속자는 29.016개월분까지 인정), 학자금(3년), 재해 위로금 등
- ③ 산림복구 및 광해 방지비 : 폐탄광의 산림훼손 복구 등 광해 방지를 위한 실소요액 전액 지원
- ④ 감산근로자 대책비 : 전년대비 10%이상 감산한 석탄광 재직 근로자에게 폐광대책비 수준의 전업준비금, 특별위로금, 학자금 등 지원

제 8 절 2000년대 탄광촌의 구조변동과 지역사회의 변화

1. 2000년대 상황 개괄

2000년대의 초기는 정선지역 탄광의 전면 폐광과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의 본격화로 시작된다. 2000년 10월 시범 카지노 성격으로 개장한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사업은 예상 밖의 큰 성과를 내며 이후 강원랜드 개발사업의 종잣돈 역할을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3년 3월 메인카지노 호텔이 개장되고 2005년에는 골프장개장, 그리고 2006년말에는 스키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반면 그동안 정선지역 탄광촌의 유일한 버팀대로 유지되었던 삼척탄좌가 2001년 11월 폐광하고 이어서 2004년 11월에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40년의 개발시대를 뒤로 하고 마지막 정선지역 탄광으로 문을 닫았다.

탄광으로 대표되었던 40년의 검은 진주 시대를 마감하고 가족형 고원리조트 도시로 탈바꿈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도시의 역사가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밑바닥에는 1천여 실직광부와 가족들의 아픔과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고통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

2000년대는 본격적으로 이 지역이 고원관광 리조트로 건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에 도전해보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가 되고 있다.

2. 동원탄좌, 삼척탄좌의 폐광과 실직 광부들

2001년 10월30일 문을 닫은 삼척탄좌 실직광부들은 이들의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으로 아이들 교육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직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 대부분이 강원남부 주민회사와 시설관리 하청업체에 취업한 상태이나 탄광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120여만 원의 임금수준으로 이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2004년 11월 폐광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마지막 광부 숫자는 734명이다. 이들 중 재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은 불과 20여명일 뿐, 대부분의 실직광부들은 2005.10월까지 지급받은 고용보험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동원탄좌 실직광부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취업 대책과 주거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원랜드 사업 이외에는 취업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06년도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채용이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40대 후반의 이들 실직광부들의 채용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결국 이런 상황은 실직광부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망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삼척탄좌와 동원탄좌의 실직광부들은 폐광이후의 생계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 닫은 후 계속 살고 싶어요.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고, 문 닫은 후에도 광부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외지에 나가면 힘드니까. 아저씨 수입이 100만원 선만 되면 있고 싶어요. 나도 좀 벌고...

(손○○, 46세 고한 중앙아파트 거주)

문달아도 이곳에 계속 있고 싶어. 신랑직장 잡고, 난 장사하고, 정들어서 떠나기 싫고, 무엇보다 공기가 좋잖아.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그것도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15년 동안 정들었어. 사람들도 순박하고 인심이 좋아.

(유○○, 39세, 사북동원탄좌아파트 거주)

3. 지역 사회 환경의 변화

2000년대 들어 정선군내 폐광지역의 사회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원랜드와 인접한 고한 사북, 남면지역은 속속 대규모 신규건물이 지어지고, 유흥업소가 난립하는 등 개발열풍에 휩싸였다. 정선군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외지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중에 있다. 이에따라 지역주민 삶의 질 악화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2000년대 들어 정선 폐광지역의 지가 상승은 10년만에



새롭게 변모한 사북읍

100배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중이던 97년경 평당 100만원을 유지하던 고한 사북읍 중심가의 경우 2000년 초반에 평당 300만원 이상을 호가하다가, 중반에 들어서면서 700~1,000만원까지 급등했다.

1990년대 중반 평당 3~5만원선에 거래가 되던 외곽지도 평당 100만원선을 웃돌고 있다. 매월 평균 30~40건의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데 매입자의 80%이상이 외지인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가 실종되고 미등기 전매등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심각한 수준이고, 거래된 부동산 역시 대부분 여관과 유흥업소등 소비위주의 향락시설이 지어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공간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행정당국의 부동산 투기대책과 삼척탄좌, 동원탄좌 폐광으로 인한 불안 심리 등으로 부동산 투기열풍은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고한초등학교 인근의 스키타운 처럼 평당 500만원대로 형성된 높은 지가는 새로운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뿐 아니라 전당포의 난립도 심각한 상황이다. 스몰카지노가 개장된 2000년말 고한읍에만 40여개의 전당포가 들어서면서 전당타운을 형성하였고, 메인카지노가 개장된 2003년 사북읍에만 48개의 전당포가 들어섰다. 전당포의 불법사채로 인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여 2003년에는 강원도 경찰청에서 기동수사대를 남면에 설치하고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전당포에 잡힌 차량만 400여대가 넘어 일부 구간에서는 전당포 차량으로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별도의 방치차량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긴급대책에 나서고 있으나 전당타운 인근에는 여전히 100여대의 잡힌 차량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소위 '대포차량'으로 불리는 불법 매매 차량들이 양산되는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한편 전당포 난립은 지역의 임대가격 상승을 부추겨 세를 들어 장사하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가져왔다. 1990년대 중반 월 1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던 상가가 2000년대 들어 보증금 수천만원에 월 50~70만원의 임대료로 올랐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세상인들의 폐업이 잇따랐고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간의 갈등 요인이 되었다.

새로 지어진 모텔 등 숙박업소 난립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인구 13,000명에 불과한 고한



석탄수송을 위한 산업철도는 관광용레일바이크로 바꾸었다.

사북읍은 2004년 현재 호텔과 여관만 38개에 달한다. 대부분 신축건물인 이들 숙박업소는 초기에 지역주민이 금융권 용자를 받아 소형 모텔을 짓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카지노 고객이 몰리면서 외지인이 투자하는 호텔급 숙박업체가 속속들어섰다.

특히 2006년말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콘도와 400실 규모 이상의 대형 호텔들이 건축될 예정이어서 수년내에 지역내 객실 수만 1만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마 시설소와 유흥주점 등 향락성 업체 60여개로 늘어나면서 지역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 건물들이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등 스카이라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어지고 있어서 사북고한지역은 거대한 유흥촌으로 난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호텔, 콘도 신축과정에서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외지 투자자를 모아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선의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4. 탄광회사에 대한 지역환원 요구 운동

정선 폐광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탄광회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사북, 고한에 백만평이 넘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동원탄좌는 강원랜드 설립

이후 속속 부동산 매각에 나서 2000년대 들어 약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한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통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강원랜드 사업부지의 핵심지역에 12만평등 40만평 이상의부동산이 남아있어 500억원대 이상의 매각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원탄좌는 이 자금으로 현재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등의 금광과 석유개발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대체산업을 요구한 지역주민및 동원탄좌탄좌 노동자들과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삼척탄좌 역시 폐광 이후 고한에 소유한 부동산 매각을 통해 200억원대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받기도 하였다.

삼척탄좌와 동원탄좌의 매각이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폐광 조건으로 지역환원을 요구하였다. 고한읍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삼척탄좌에 대한 지역환원 투쟁에 나서 구사택 부지 공시지가 매각을 통한 주거단지 조성 지원, 장학금 10억원 기탁등의 성과를 얻어 현재 정암장학회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사북읍 번영회 등 사북지역 역시 2003년 동원탄좌탄좌 대체산업 촉구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사 항의 농성등 투쟁을 펼친 결과 동원탄좌 부지 4만평 감정가 매각, 장학기금 20억원 기탁, 개발용역 지원 등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한편 동원탄좌 노동자들은 폐광에 따른 위로금 추가 지급과 아울러 석탄유물 보존위원회를 만들어 동원탄좌의 폐광 잔재물을 지역 역사의 생생한 유물로 보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제 9 절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

1. 강원랜드 설립 과정

1995년 3.3 투쟁 결과 입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개소 설치를 허용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강원랜드 설립의 근거가 된다. 1996년 4.6일에는 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어 카지노 운영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97년 2월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 승인(건교부) 및 고시(강원도 고시 97-23호)하여 탄광 지역개발 및 민자유치 계획이 공고(97.4월)되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관광휴양 21건, 지역특화사업 18건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4개 시군의 요구를 그대로 담아 스키장과 골프장, 레저단지가 대부분 중복되는 등 사업성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편 1997년 4.21일 "카지노 사업추진 기본방안" 수립을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카지노법인 구성 및 운영방향 등 기본사항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이 카지노사업의 운영주체로 지정되고, 강원도가 통상산업부, 문화체육부와 법인구성, 운영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4.28일에는 사업단 내에 "카지노리조트 사업본부"를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1997년 5.6일 통상산업부는 사업단의 폐광지역 관광개발사업(카지노) 출자를 승인하였고 출자금 내역은 폐광대책준비금 111억원, 별도적립금 57억원, 목적 사업 준비금 175억원, 시설 투자 준비금 17억원으로 총 360억원이었다.

민감한 지역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했던 카지노 설립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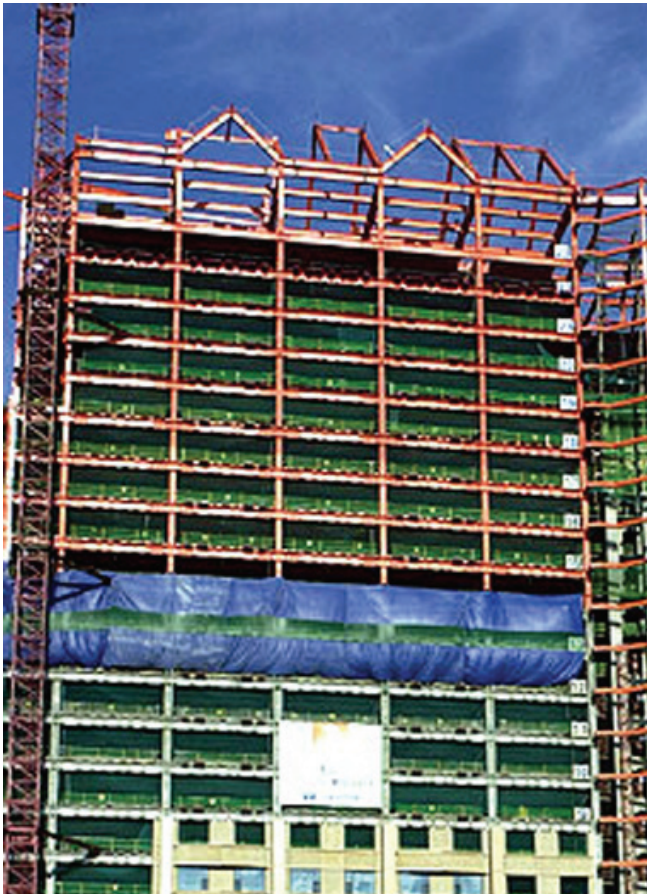
ちに 대해서 카지노업 허가대상지역 위치선정 용역을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수행하였다. 학회는 1997년 5.12일부터 6.20일까지 고토일, 지장산, 만항, 박십지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97년 8.13일 카지노업 허가대상지역으로 백운산 지구(박십지구를 포함)를 선정 발표하였다. 합리화 사업단의 카지노 리조트 사업 본부는 위치 선정 이후인 1997년 11.10일부터 다음해인 1998년 10.7일까지 강원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 Master Plan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1단계로 2002년까지 카지노부문 슬롯머신 1600대, 테이블 80대 설치, 호텔 550실과 콘도 100실 테마파크 5개관 설치하고, 2단계로 2006년까지 슬롯머신 480대, 테이블 2대 증설, 호텔 610실 콘도 700실, 테마파크 2개관을 증설하고, 스키장 12면과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1998년 6.29일 카지노 리조트 단지를 추진할 회사로 (주)강원랜드가 설립되었다. 초기 강원랜드의 출자구성은 사업단(360억원/74.1%), 강원도개발공사(66억원/13.6%), 정선군(25억원/5.1%), 태백시(12억5천만원/2.6%), 삼척시(12억5천만원), 영월군(10억원/2.1%)등 총자본금 486억원의 공공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98년 터진 IMF 사태에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민간투자 위축에 따른 투자유인을 위해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공모(490억원/액면가 5천원)를 실시하게 되었다.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1999년 7.19일부터 진행된 민간부문 주식공모를 통해 유상증자(980만주)하여 공모가 18,500



강원랜드 메인 카지노 호텔의 골조공사 모습

원(조달금액 1,813억원/경쟁율 12.2대1)로 자본총액 2,323억원(주식발행초과금 1,323억+공공부문 510억원)이 자본금으로 확충되었다. 그 결과 공공지분 51%, 민간자본 49%의 주주구성이 완료되었다.

2. 스몰카지노의 개장과 강원랜드의 성장

원래 강원랜드 사업은 2002년 메인카지노 호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IMF 국가위기라는 큰 복병을 만나게 된다. 즉 강원랜드 사업 이외에 추진되었던 대체산업형 민간투자 사업이 IMF가 터지자 모두 무산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높아져 갔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시 스몰

카지노 구상계획을 밝히면서, 카지노사업의 조기 개장을 추진하였고, 1998년 12.26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변경고시(강원도 고시 제98-257호)하여, 강원 카지노리조트 사업의 면적, 사업비, 사업내용(카지노포함)을 신규 승인하였다.

또한 (주)강원랜드를 카지노리조트조성 사업 시행자로 공식 지정(강원도 고시 98-258호)함으로서 시범 카지노 성격의 스몰카지노 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1999년 2.25일 강원랜드 제11차 이사회에서 고한 박심 지구에 호텔200실, 게임테이블 30대, 슬롯머신 500대 등의 규모의 스몰카지노 설립계획을 확정하여 1999년 9.1일 스몰카지노 호텔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2000년 10.12일 문광부의 카지노업 영업허가를 받아 10.28일 스몰카지노 호텔 개장하게 되었다. 카지노 사업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가운데 개장한 스몰카지노는 예상 밖의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된다.

개장연도인 2000년 2개월 동안에만, 약 9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다음해인 2001년에는 4,620억원, 2002년에는 4,760억원 매출을 올려 2년2개월간 약1조117억원 매출액에 약 48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게 된다.

년도별 입장객 수를 보면, 카지노가 처음 개장한 2000년도에는 약 2개월간(10. 28일 개장) 21만 여명이 방문하였으며, 하루 평균 약 3,200명 정도가 카지노를 이용하였다. 또한, 2001년도에는 약 90만명, 2002년도에는 91만명이 각각 강원랜드를 방문하여 2년 2개월 동안(2000. 10. 28~2002. 12. 31)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한 사람들은 약 2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입장객 수는 2,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스몰카지노의 성공적인 개장을 바탕으로 2003년 3월 문을 열게 된 메인카지노는 호텔객실이 447개, 게임테이블 100대, 슬롯머신 960대의 규모로 스몰카지노와 비교하여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매출액과 고용인력 및 입장객의 수에 있어서도 괄

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2003년 매출액은 6,926억원, 당기순이익 2,297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2004년도에는 매출액 7,828억원, 당기순이익 2,712억으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 갔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입장한 관광객의 수도 메인 카지노가 개장한 2003년에는 154만명으로 2002년(92만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2004년에는 174만명으로 입장객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5년 7월 박십지구에는 18홀의 대중골프장이 개장되었고, 2006년말경 백운산지구에 18개의 슬로프와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스키장 건설이 완공되는 2006년말이 되면 초기 강원랜드 리조트 개발계획이 완료된다. 강원랜드 리조트 조성사업이 안정화 단계 들어서면서 2004년말 기준으로 강원랜드의 자산총액은 1조 3,183억원으로, 이중 유동자산이 5,830억원, 고정자산이 7,353억원이고, 자본총액 1조 673억원으로 설립초기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 강원랜드의 파급효과

그렇다면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의 이유가 되었던 폐광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얼마만큼 이루어 졌을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강원랜드로 인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지표는 강원랜드의 성장만큼이나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강원랜드의 파급효과를 주요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2004년 12.31일까지 총 536만여명이 이용하여 일평균 3,513명 다녀간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스몰카지노(00.10.28~03.3.27) 운영시기에는 225만명, 일평균 2,552명이 입장하였다. 메인 카지노(03.3.28~04.12.31) 운영시기에는 311만명, 일평균 4,825명이 방문했다.

또 총 매출액은 2조 4,790억원으로 일평균 21억원이고, 이중 카지노 매출액이 98%이고, 호텔 및 테마파크는 2%를

차지한다. 당기 순이익은 총매출액의 40%인 9,768억원이고 이중 투자적립금이 5,300억이다.

강원랜드가 조세 및 기금으로 지금까지 9,36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중 국가수입은 7,332억원(국세 4,947억원, 관광기금 2,385억원)으로 78.3%이고, 지방수입은 2,034억원(지방세 635억원, 폐광기금 1,399억원)으로 21.7%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는 법인세가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득세, 특소세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79%이며 취득세, 담배소비세 순이다.

2004년말 기준으로 강원랜드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는 총 3,986명이고, 이중 정규직원의 수가 3,115명, 협력업체 직원은 871명이다. 이중 도내출신은 2,526명(63%)이고, 폐광 지역 4개 시·군 출신은 2,172명(55%)의 비율로 고용되고 있다. 전체직원 중 정규직원은 3,115명으로 탄광지역출신의 비율은 43.6%이고, 협력업체 직원의 수는 871명으로 93.5%가 탄광지역 출신으로 집중되어 있다. 강원랜드 직원의 거주지별 분포는 태백에 859명, 직원숙소가 위치하고 있는 정선이 2,206명, 기타 50명이다.

반면 가족가구의 거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나은 태백시에 462명(62%), 정선 281(37%), 기타 2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가 직원들에게 대여하는 주거안정자금은 870명에게 약 223억원을 대여하였고, 대여자별 지역별 분포를 보면 태백 670명, 정선 184명, 삼척 5명, 기타 11명이다. 또 강원랜드 직원의 총 인건비 지출액은 2,302억원으로 가족 동반 직원 763가구의 소비지출액은 총 788억원으로 추정되고, 소비지출 지역은 태백이 60.5%, 정선이 36.9%, 기타 2.6%로 추정된다.

건설부문에서 강원랜드가 지출한 투자액은 총 8,216억원이고, 이중 도내 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은 28.7%인 2,358억원이다. 이외에도 골프장, 스키장 등의 대형공사 시행으로 인한 숙박, 음식점, 주유소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과 관련



강원랜드 골프텔(구. 스톤 카지노 호텔)의 야경

된 협력업체에 12개의 지역업체가 참여, 256억원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식자재 납품은 36개의 지역업체로부터 484억원(81.5%)을 납품받고 있으며, 4개시군 12개 재래시장으로부터 순번제를 실시해 호텔, 종업원 식당에 연간 36억원의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다.

강원랜드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콤포를 지역상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2004.3월) 가능하게 함으로써 4개시군 567개 업소에서 19억원 사용하였고, 이중 사북(145업소/547백만원), 고한(145업소/527백만원), 태백(145업소/378백만원) 순으로 강원랜드로부터 가까운 사북, 고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매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하고, 2004년에는 출연금 20억원 이외에도 2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2005년에는 4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꿈나무 중식지원 사업, 청소년문화사업, 긴급집수리사업,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의 다양한 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랜드 총 매출의 1%를 지역협력사업비로 책정하여 지역협력사업 및 문화, 예술행사에 지금까지 166억원을 지원하였다.(2003년 복지재단 설립 이후, 지역협력사업비에서 복지재단 사업비로 출연함.) 81개의 마을과 강원랜드 부서와의 "1팀 1마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활동 적극 추진하고, 아이스하키팀과 스키팀 창단을 통해 동계스포츠 활성화 와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랜드 설립이후, 고한,사북,태백 등 인접 지역의 지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고한읍사무소 주별은 평당 공시지가가 2,417천원, 감정가는 5,445천원, 거래가는 9,000천원으로 상승하였고, 사북읍 시가지 주변의 지가는 평당 공시지가가 2,620천원, 감정가는 7,860천원, 거래가는 10,000천원으로 급등하여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던 95년 전후의 지가와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카지노 관광객이 대거 지역을 방문함으로 버스의 경우, 카지노 개장전, 서울방면으로 5회 운행에서 서울을 비롯한 안산, 수원, 고양, 춘천 등 5개노선에 30대로 증차하고, 열차운행은 2000년 이후, 무궁화, 새마을호 각각 1편씩 상,하행 4편 증편하였다. 열차의 이용객은 고한,사북역에 주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용 택시는 고한, 사북 지역에 크게 증가하여 2000년 82대에서 2004년 171대로 2배이상 증차하였고, 개인택시의 프리미엄도 전국최고인 1억 3000만원을 육박하고 있다.

강원랜드 설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탄광지역 4개시군의 인구감소율은 강원도 평균감소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의 인구는 지난 2000년 1,559천명에서 2004년 1,528천명으로 2.0%감소하였으나, 태백시는 6.5%, 삼척시는 9.3%, 영월군은 12.0%, 정선군은 50,631명에서 45,633명으로 9.9%로 감소했다.

특히, 강원랜드와 인접한 고한읍과 사북읍의 경우, 14,817명에서 13,071명으로 감소해 11.8%의 높은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랜드 설립으로 인한 외지 인구유입보다 2001년 고한읍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와 2004년 사북읍 동원탄좌 시북광업소의 연이은 폐광으로 인한 지역 인구의 유출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 강원랜드와 탄광촌 주민

강원랜드가 개장된 이후 2000년대 들어 탄광촌 주민들의 삶도 많이 변하였다. 탄광 광부는 이제 태백이나 도계로 나가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폐광 이후 실직율이 15%에 달하는 등 고용의 문제가 최대 현안이긴 하지만, 취업창구는 청소나 시설관리등 강원랜드에 고용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또한 광부 부인들의 경우 전업주부는 거의 없어져 다양한 직업을 찾고 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 취직하거나 직접 광부 남편과 함께 소규모 식당이나 슈퍼를 운영하기도 한다.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광부의 아내나 지역상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여성의 분포도 달라졌다.

젊은 여성들이 강원랜드에 고용되면서 전문직 여성들이 대거 유입되고, 강원랜드에 취직한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온 아줌마들도 늘어났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에 간병도우미로 고용되기도 하고, 정선자활후생기관에 참여자로 고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카지노에 왔던 여성들이 눌러앉아 지역에 살면서 식당을 취직을 하거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등 카지노 노숙자가 새로운 지역주민으로 편입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개발의 성과들과는 달리 강원랜드와 인접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말할 못할 고충도 뒤 따르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도박중독자의 양산으로 인한 지역의 정주환경의 파괴화이다. 지역의 공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내국인 카지노가 시간이 흐를수록 부메랑이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하루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는 고객의 수는 5000여명, 이중 월15회 이상 입장하는 고객이 1,000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없이 카지노에 재산을 탕진하여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파

탄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종범죄가 증가하고, 공동체 문화가 파괴 등 매우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산의 도시였던 탄광촌에서 소비의 도시인 관광지로 전환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많이 변화였다. 특히 내국인 유일 출입소인 카지노로 인해 모텔과 호텔이 들어서고 도박중독자들과 카지노 노숙자들이 생기고, 지역의 주민 중엔 카지노에서 전채산을 털고 빚까지 지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산적 노동자였던 광부들이 남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카지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바뀌면서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카지노 중심도시로 바뀌면서 그 폐해를 직격탄으로 맞는 폐광촌 고한, 사북... 관광으로 얻어지는 달콤한 열매와 함께 우리 지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지 일 것이다. 과거 탄광촌 공화국이 '강원랜드 공화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지적도 새삼스레 들려온다.

강원랜드가 들어서고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바깥 경기도 워낙 없다고 하니까 이곳도 그렇고, 그래도 강원랜드 직원들이 있어서 젊은 분위기잖아요.. 여기다니는 사람들 나이가 훨씬 어려진 것 같아. 피부로 느껴져요. 앞으로 환락가보다는 주택가가 많이 생겨 아이들도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39세, 고한 주공아파트 거주)

스몰카지노 들어서고 지금까지 장사하는데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데, 확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우리집 손님은 강원랜드 직원, 공사장 아저씨들, 그리고 카지노에 온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강원랜드 숙소가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왕왕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 41세, 고한에서 식당운영)

동탄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

데, 앞으로가 걱정이지, 뭐. 우리집은 아이들 손님이 많은데 애들이 갈데가 없으니까 맨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하고...개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삼척탄좌사람들이 바깥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동탄사람들은 무조건 떠나는 것보다는 이곳에 있겠다는 사람들이 많단니까. 그사람들이 취직도 잘되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안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정○○, 40세, 사북에서 상업)

아줌마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옛날 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훨씬 부족하지..애들 안심하고 잘 키울 수 있으면 더 좋겠고... 학교에 애들이 워낙 주니까 같이 합치는 것도 좋을거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 43세, 사북아파트 거주)

광부들이 떠나가고 강원랜드 직원들과 공사인부들, 카지노와 골프를 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도박중독자들이 그 자리를 메꾼다. 광부들은 고향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도 있고, 강원랜드에 취직하여 다니는 사람, 지역에 식당이나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주한 광부들은 작업시간이 길고 노동자로 조직화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주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광부의 임금보다 훨씬 작은 돈을 받고 강원랜드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삼척탄좌와 동탄이 폐광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고한, 사북의 지역주민, 지역문화 그리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록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일지(1995-1996년)

[1995년]

- 1월 14일 광산지역사회연구소 - 태백지역개발특별법제정 운동 공식 제안
- 1월 21일 태백시기독교교회협의회 월례회에서 특별법제정 서명운동 결의
- 1월 24일 교회협의회 기자회견, 가두서명발대식
- 1월 24일-28일 태백시민 명운동전개, 가두홍보 3회실시
- 2월 8일 서명완료(서명참여자 총 11,149명)
- 2월 27일 고한사북 공추위 주도로 주민궐기대회 시작 (특별법제정요구)
- 3월 2일 태백시공추위 긴급모임 - 특별법제정위원회 설치, 사북투쟁 지원 결의
- 3월 3일 사북고한투쟁 타결 - 5개항 합의(특별법제정 약속 포함)
- 3월 22일 특별법제정을 위한 탄전지역주민연대회의의 구성을 위한 간담회
- 3월 30일 특별법제정을 위한 주민연대회의 결성 (태백시청 상황실), 태백시,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영월군 상동읍, 삼척시도계읍 주민대표 참석
- 4월 24일-26일 특별법자료 수집을 위한 제주도 답사(제주도청, 도의회, 사회단체 방문)
- 5월 19일 특별법제정 주민연대회의 전체회의 (고한읍사무소)
- 5월 20일-24일 각 지역별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1차 조사활동
- 5월 25일 특별법제정 주민연대회의 정책협의
- 6월 2일-5일 각 지역별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2차 조사활동
- 6월 5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폐광지역주민 종합의견서

작성

- 6월 7-9일 연대회의 대표단 중앙부처 방문(통상부, 환경부, 건교부, 산림청)
- 6월 16일 강원개발연구원 주최 특별법 공청회(사북읍사무소)
- 7월 24일 주민연대회의 명칭변경결의-강원 남부 폐광지역주민대표자회의
- 7월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특별법 공청회 (경기도 의왕시) 주민 300명 참석
- 7월 27일 연대회의 명칭 변경, 강원 남부 폐광지역주민대표자회의
- 7월 28일 주민대표자회의 통상부와 실무협의(과천 종합청사)
- 8월 3일 경실련 유제현 사무총장과 실무조사반 현지조사 및 주민간담회-주민의견에 협력키로 입장 조정
- 8월 7일 강원남부폐광지역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 주민의견을 담은 특별법시안 최종 확정
- 8월 17일 주민대표자회의 대정부 촉구 성명발표 - 특례 인정 촉구
- 8월 29일 춘천 강원개발연구원 소회의실에서 통상산업부 대표와 주민대표 특별법 실무협의 - 특별법시안 최종 합의(통상부안)
- 8월 30일 별법 입법예고-통상부공고 제 1995-122호
- 8월 30일 박금용 도의원(태백시) 등 도의원 5명 도의회에서 단식농성(특별법 제정 촉구)
- 8월 31일 도의원 단식에 대한 성명서 발표(주민대표자회의)
- 9월 1일 자연의 친구들의 4개 단체-특별법저지 성명발표
- 9월 4일 주민대표자회의 긴급모임-환경단체에 대한 성명발표

- 9월 중순 중앙부처 방문결의, 시행령작업반에 각시군의 공무원 1인씩 참여, 시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결의
- 9월 16일 전국진폐 재해자협회,특별법 원안통과 촉구 성명발표
- 9월 17일 경실련 등 3개단체 특별법 의견서 제출
- 9월 19일 주민대표자회의-개발촉진지구 사업지정 재검토 건의문제출
- 9월 24일 환경부에서 녹지등급완화규정 허용확정 (식생 우수지역 개발가능)
- 9월 28일 개발촉진지구 원안승인 촉구 성명서 발표(주민 대표자회의)
- 10월 2일 주민대표자회의 비상전체회의 소집(고한읍사무소)-성명발표(원안통과, 개발촉진지구 원안승인)
- 10월 14일 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시군의회,도의원 연석회의)태백시청상황실-개발촉진지구지정 조기지정 및 사업승인의 특별법통과이후 일괄승인 합의
- 10월 24일 특별법원안통과를 위한 주민차량대행진 및 결의대회 결정
- 10월 24일 특별법 원안통과를 위한 차량대행진 및 주민 결의대회(차량 500대 ,주민 1500여명 참석)
- 11월 2일 전체차관회의에서 카지노 허용 원칙적 합의
- 11월 4일 전체차관회의 임시회의-카지노 관련 범조항 최종합의(1개소허용,공익법인,수익금지지역개발에 사용 등)
- 11월10일 국무회의 특별법 원안 의결
- 11월14일 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 (상동 백운산장)-카지노 문제등 합의, 시행령 25일까지 각지역별로 의견수렴
- 11월21-22일 국회 통상산업위 원안통과(주민대표자회의 참관)
- 11월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주민대표자회의 참관 - 23명)
- 12월 8일 태백시특별법제정위원회와 태백시 시행령 실무협의-시행령안 조정
- 12월 23일 주민대표자회의(한마음신탁) 시행령정책협의-4개시군공무원참여
- 12월 25일 주민대표자회의 시행령 실무작업(이화정여관) - 4개시군 공무원 참여

- 12월 26일 주민대표자회의 시행령 정책협의회 - 최종안 결정(황지제일라이온스 회관),시행령안에 대한 강원도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항의하는 항의문 발송
- 12월 29일 주민대표자회의, 4개시군,강원도 시행령 최종 합의(강원개발연구원 소회의실)

[1996년]

- 1월 30일 시행령안에 대한 협의회 (춘천 공영빌딩 소회의실) 통상산업부, 강원도, 4개시군, 주민대표자회의
- 2월 시행령안 입법예고
- 3월 경제차관회의, 전체차관회의
- 3월 22일 카지노성명서(문화체육부는 특별법시행령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라)
- 3월 25일 카지노 성명서-기형적인 타협안도 철회해야 한다
- 3월 26일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3월 26일 시행령 통과에 대한 논평
- 3월 30일 성명서-지역현안에 대한 대책 촉구
- 4월 6일 시행령 제정공포
- 4월 17일 성명서-불교계의 만항지구개발반대에 대한 주민의 입장
- 5월 3일 3개 주민기업대표,통상산업부 방문(국고보조 요청)
- 5월 7일 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발전적 해체 새로운 조직건설키로 합의. 성명서_불교계는 만항지구개발반대를 재고하라
- 5월 16일 새로운 조직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 - 도계탄광지역개발계획 승인 신청 (강원도 → 건설교통부) 자료만 제출
- 5월 27일 실무협의회 2차 회의
- 6월 3일 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공식 해산결정
- 8월 12일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고시(통상산업부)탄광지역개발계획 승인 공식신청 (강원도 → 건설교통부)
- 8월 16일 대체산업육성지원계획 확정고시(통상산업부)
- 12월 9일 강원남부폐광지역번영협의회결성(공동대표 7개 지역 번영회장, 사무국장 원기준)

[발췌 : 광산지역연구소 홈페이지 인용/소장 원기준]

[부록 2] 탄광지역에서 사용된 외래어 모음

용 어	한자 등	해 설	용 어	한자 등	해 설
가가미	傾淬	차량쉬의 한쪽을 받치는 지주	부비끼	-	감람
가리	替	갈아 놓는 것	빠루	-	못을 빼는 지렛대
가베	側壁	측벽	뽕기	Point	분기점
가베마끼	壁卷	측벽을 채우는 것	베스	雷管	기폭제(화공품)
가쇼	-	작업개조	사끼야마	先山夫	기능공
개스이	排水路	물도랑	사시바리	-	분기점의 지주
가꾸	逆	반대방향	산마이와꾸	三梅淬	목재 3매로 세우는 지주
고마이와꾸	五梅淬	목재 5매로 세우는 지주	산승구찌	三寸口	말구 세치정도의 환목
고야	-	창고 대기실용 작은 건물	샤-링	차륜(車輪)	광차바퀴
구루마	鐵車	탄 및 경석을 싣는 차	섹사이바꼬	積載函	짐 싣는 함
기도	軌道工	궤조를 설치,수리하는 사람	스립파	Sleeper	枕木, 레일밑에 까는 나무
기리바리	切長	지주와 지주의 버팀목	스파이크	Spike	레일과 침목 고정시키는 큰 못
기리아	-	작업장	시구리	-	보행작업(광의)
나루기	成木	판자처럼 켜 놓은 나무	시누끼	-	심발공
노리바시	昇廻工	사향조차공	쓰나기	-	지주와 지주를 버티주는 판자
노보리	昇	오르막 갱도	쓰리	Sill	4매쉬 바닥에 까는 나무
니구리	-	탄 경석 등을 삼으로 옮기는 일	아도우끼	后山夫	보조공
니바꾸	室車	경석탄이 적재된 광차	아도우끼	后山夫	보조공
넙교와꾸	人形淬	3매쉬의 한쪽 각쉬 깎아 세움	아시	脚柱(Post)	지주의 다리
다까우찌	高落	천반이 높이 빠지는 것	아시모도	각근	지주의 각(脚)이 설 자리
다데꼬	立坑	수직으로 된 갱도	앙꼬	진쇄물	메지
다데마에	立粹	각주의 위치	오로시	斜坑	내리막 갱도
다마이시	玉石	탄층속에 있는 둥근 암석	오아다이	-	뇌관끼인 다이나마이트
다이	다이나마이트	폭약	오커브	緩	원만한 커브
다이샤	台車	함이 없는 평광차	온마이와꾸	四梅淬	목재 4매로 세우는 지주
덜다이	-	오아다이후에 넣는 다이	우찌바시	打柱	지주 가운데 세우는 기둥
덴바	天盤	천반공	유끼	萬門	막장방향
덴바시메	天盤萬	천반을 채우고 매우는 것	쵸구	-	유탄용 철판
도라후	Trough	“	쵸맹	充臍	매우는 것
도리가이	振替	바꿔쳐우는 것(예:풍도도리가이)	징구로	-	레일을 굽힐 때 쓰는 도구
돈네기	都給制	작업량에 따라 셈하는 임금제	큐커브	急	급커브
돈부	脫	차륜이 선로밖으로 떨어짐	티프라	Tippler	질차를 비우는 장치
딸딸이	木鐵車	중단에 사용하는 목제광차	하꼬띠기	-	함당단가로 셈하는 임금제
마끼	捲揚機	권양기	하꼬	箱函	광차함
마끼다데	捲立	사갱과 수평갱의 분기점	하도메	車輪止	차륜이 들지 못하게 하는 장치
마끼바	捲揚場	권양기실	하라이	側壁	측벽공
마루다	丸木	둥나무	하리	木(Cap)	지주의 머리(머리)
마와꾸	間淬	지주와 지주사이 시공 지주	하사미	挾石	탄층속에 끼인 암석
모도리	后問	갱구방향	호라꾸	崩落	앞어지는 것
몰	Moll	레일연결용구(볼트,넛)	흠노미	-	채탄 천공문장대
미스와리	水割	배수작업	흠바	貯炭場	탄을 모아 두는 곳
밀다이	-	오아다이 먼저 넣는 다이	흥고도	本抗道	주 운반갱도
바깅	-	썰기	후루고도	古抗道	채굴이 끝난 갱도
밧데리카	蓄電車	밧데리로 운행하는 차	후루기	枯木	한번 사용한 광목
방부꾸로	盤膨脹	바닥이 팽창되는 것	후마에	踏磐	밀바닥공
방우찌	般打	팽창된 바닥을 파는 것	후앙	FAN	선풍기
베시	Base	레일 연결용구	후우다이	風堡	-
보다기리	勁節	탐탄 채탄위한 소규모 굴진	흠부리	-	각주의 경사
보다기리	勁節	탐탄 채탄위한 소규모 굴진	흠바	-	광이
부마시	-	증량			